금주의 법구–〈장부장경〉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오직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21일)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사찰 문화재관람료 갈등, 60년 만에 해소

조계종–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
5월 4일부터 65개 사찰서 감면
매표소 명칭 '문화유산안내소'로
탐방객 증가…관련 대책 필요해
정부와 불교유산 보호 캠페인도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휴가철만 되면 불교계와 등산객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원치 않는 갈등을 겪어왔다. 60여 년 동안 이어진 해묵은 갈등이 드디어 해소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며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국립공원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 421억 원이 책정 · 승인돼 비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라는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은 총 65개소로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보유 사찰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인 강화 보문사, 부여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징수를 유지한다.

기존 매표소의 경우 명칭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된다. 안내소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예산은 419억 원이며, 배정된 예산 421억 원 중 2억 원은 사업 연구 용역으로 사용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방식으로 문화재청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신청과 집행을 추진하게 된다. 감면 비용 신청은 법 시행 후 오는 6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감면비용 산정기준은 감면 직전 년도 관람료 수입 및 관람객 수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예산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무료입장이 현실화되면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 활용을 위한 조계종과 정부의 협약도 이뤄졌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조계종과 정부는 협약을 통해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 대로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드디어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르다"면서 "천년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축하했다.

이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조계종은 한류의 문화원형인 불교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후대에 온전히 계승돼 민족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강화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널리 향유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랜 갈등이 해결됐지만,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정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과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불교문화유산 보존 인식 공유과 사찰 예절 준수를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스님은 "캠페인을 통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사찰의 환경이 보호되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수행환경이 심대하게 훼손된다면 예약제 등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과 교구본사,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무료 입장 시행 첫 날인 5월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 (65개소)

전등사(강화), 용주사(화성), 신륵사(여주), 신흥사(속초), 청평사(춘천), 낙산사(양양), 백담사(인제), 월정사(평창), 삼화사(동해), 구룡사(원주), 법주사(보은), 영국사(영동), 마곡사(공주), 동학사(공주), 갑사(공주), 신원사(공주), 무량사(부여), 관촉사(논산), 수덕사(예산), 직지사(김천), 동화사(대구), 파계사(대구), 운문사(청도), 용연사(대구), 은해사(영천), 수도사(영천), 대전사(청송), 불국사(경주), 석굴암(경주), 분황사(경주), 기림사(경주), 보경사(포항), 불영사(울진), 해인사(합천), 쌍계사(하동), 옥천사(고성), 범어사(부산), 통도사(양산), 내원사(양산), 석남사(울주), 표충사(밀양), 봉정사(안동), 부석사(영주), 금산사(김제), 금당사(진안), 안국사(무주), 실상사(남원), 백양사(장성),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연곡사(구례), 태안사(곡성), 흥국사(여수), 향일암(여수), 선암사(순천), 송광사(순천), 운주사(화순), 대흥사(해남), 무위사(강진), 도갑사(영암), 선운사(고창), 내소사(부안), 내장사(정읍), 자재암(동두천), 용문사(양평)

김 주 일
(1968~2023)

본지 편집국장 별세

5월 4일 지병으로…향년 55세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사진〉이 5월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김주일 편집국장은 한성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편집국장은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래 줄곧 평생을 불교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주간불교〉에서 편집국 총괄부장을 지냈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편집부장과 편집부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6년을 종단, 포교, 문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하며 불교계 소식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기획해 4년 동안 진행했다. 불교방송에서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행복스튜디오' '주간불교소식' '무명을 밝히고' 등의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했다.

김 편집국장은 불교 전문 기자로서 역량을 향상하고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2017년 취득했다. 석사 논문은 '한국 불교 언론의 보도시스템에 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불교계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72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했다.

김 편집국장은 불교언론인으로서 기자상을 다수 수상했다. 주요 수상 이력은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부문 우수상(2000)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선원빈 기자상'(2011)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2011) 등이다.

김 편집국장의 빈소는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으며, 현대불교신문사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및 발인은 5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엄수됐다. 장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광명선원. 신성민 기자



故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가고자 했던 길과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늘 든든하고 따뜻하게 우리 곁을 지켰던 당신을
오래오래 기리며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례위원회

승려복지 숙원 '스님 전문 요양병원' 문 열다

조계종, 5월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병고의 걱정을 덜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1월 조계종과 의료법인 인덕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종단 직영으로 전환한 파라밀요양병원이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것.

5월 3일 안성시 죽산면에 자리한 아미타불교요양병원서 열린 개원식에는 의료법인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등 원로스님들,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6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해 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했다.

앞서 의료법인 이사장이었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게 파라밀요양병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종단 직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총무원에 운영을 제안하면서 업무협약이 급물살을 탔다.

의료법인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된 자승 스님은 이날 법인 대표이사인 총무부장 호산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종단 직영 요양병원의 개원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자승 스님은 "전문 의료진과 쾌적한 시설을 갖춘 승려 요양병원의 개원으로 마침내 종단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됐다"며 그동안 요양병원을 이끌어온 故각현 스님과 성운 스님의 원력에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 등 600여 대중 축하
故각현 · 성운 스님 원력 계승
"종단 숙원사업 중 하나 해결"
원활한 운영 위한 후원금 답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요양병원 개원과 더불어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정진할 수 있는 승려복지제도 확대를 천명했다. 스님은 "앞으로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며 80병상 규모의 제2병동 신축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성운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고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성운 스님은 "종단 직영 덕분에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까지 아우르는 불교복지 마스터플랜을 알게 됐다"면서 "그동안 많은 상을 받았지만 오늘의 공로패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제시한 핵심 종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개원식에는 여러 스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의료법인 조계종승려복지 이사장 진우 스님과 내빈들이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을 축하하며 기념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많은 스님들이 노후에 갈 곳이 없어 걱정해왔는데 이번 요양병원 개원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요양병원을 이끌어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교구본사를 비롯한 여러 사부대중이 함께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많은 스님들이 요양병원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김학용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 홍기현 경기남부 경찰청장 등도 축사를 전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개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원하는 각계의 후원도 잇달았다. 지난달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총 1억4000만원,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도 후원금을 전했으며, 안성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4000만원을 약정했다. 또 조계사 · 봉은사 · 도선사가 매달 쌀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날 포교원장 범해 스님, 불국사 원로의원 종상 대종사,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 안성불교사암연합회장 해월 스님 등도 후원금을 기탁했다.

특히 주식회사 페데스탈코리아는 1억여 원에 달하는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희사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정훈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개원식 이후에는 자광 대종사와 진우 스님, 김동연 지사 등이 새 단장을 마친 4층을 돌아보며 기존보다 한층 개선된 시설에 놀라움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리모델링 전과 비교하면) 병실이 스위트룸이 된 것 같다"며 승려노후복지 발전을 위해 보다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조계종 스님들을 우선 대상으로 입원 절차를 밟게 되며, 현재 간호사 자격을 갖춘 비구니 스님도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병원불자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쾌척 잇달아

천안 각원사 1000만원 전달
평택 명법사 1억 원 쾌척해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대종사는 5월 2일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는 5월 3일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대종사는 5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기독교세가 강한 천안에서 각원사가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지역 불교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불교는 우리 민족과 1700년을 함께하며 민족 정체성을 형성했다. 앞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천일기도에 입재한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종단 목적불사에 힘을 모아준 각원사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원 대종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성스러운 불사"라면서 "깊은 역사와 함께 국민의 정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대불교 선지식인 용성 진종 조사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명법사가 설립한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실천회(이사장 화정, 이하 실천회)도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실천회 이사장이자 평택 명법사 회주인 화정 스님은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펼쳐온 핵심 종책 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줘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사장 화정 스님은 "욕심 버리는 수행을 하면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사찰을 만들고 있다"면서 "용성조사 유훈인 만중생의 성불인연을 맺기 위한 보살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31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 9명 위촉

문화재청 위촉식…본지 사장 혜도 스님 궁능분과위원

위촉 前 위원들 총무원장 예방
진우 스님 "성보 외호" 당부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제31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 9명이 위촉됐다.

문화재청은 5월 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위원 100명과 문화재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4월 30일까지.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9개 분과로 구성돼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 ·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스님은 총 9명이다. 건축분과에 문화부장 탄원 스님, 동산분과에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적분과에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 천연기념물분과에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매장분과에 김해 성조암 주지 허허 스님, 근대분과에 안양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 민속분과에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세계유산분과에 서울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궁능분과에 본지 사장 혜도 스님이다.


제31대 문화재위원 스님들은 5월 1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위원 스님들은 5월 1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성보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는 것은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맡은 자리에서 성보 외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재위원장으로 강봉규 경주대 특임교수가 선출됐다.

신성민 기자

대흥사 주지후보에 법상 스님 단독출마

5월 2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후보로 현 주지 법상 스님<사진>이 단독출마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5월 12일 대흥사 산중총회를 앞두고 5월 2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주지 법상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월 9일 회의를 열고 법상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격심사가 확정되면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스님의 당선은 확정된다.

법상 스님은 은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2019년 종덕 법계를 품수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장, 무안 법천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김주일
편집국장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김주일 편집국장님은 훌륭한
언론인이자 신심깊은 불자였습니다.

김주일 편집국장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과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순례 참가자에게 완보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상월결사 印순례 해단…'대학생 전법' 선언

5월 2일, 동참자 108명 전원에 자승 스님, 완보증서 직접 수여 대학생 전법위 자문위원단 위촉 진우 스님 "전법의 길엔 모두 도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완보증을 수여받은 참가 스님과 자승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붓다의 길마다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걸음마다 차별없는 평등으로 신심과 원력을 체득한 인연공덕을 기립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사부대중의 지극한 서원을 기립니다."

불교중흥과 생명존중을 발원하며 43일간의 인도순례를 떠났던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인도순례 여정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해단식을 봉행했다. 이날 해단식은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향한 전법포교를 선언하는 자리기도 했다.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개최된 해단식에는 동참자 108명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여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총도감 호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지난 43일간의 인도 순례를 회상했다. 스님은 "불교중흥과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는 대승적인 정진이었다"고 회고하고 "인도순례에서 쌓은 신심과 원력은 전법과 불교중흥의 중요한 발판되어줄 것"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 대학생 불자에게 활력을 전해주는 일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대학생 불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어린이 청소년을 이끌어갈 길잡이"라며 "부처님 법을 전해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전하는 훌륭한 전법 행자들에게 관심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순례를 통해 모두가 쌓아온 원력을 다짐하며 내가 얻은 것을 사람들과 사회에 전해야할 것"이라며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부처님 법을 전하는 큰 기쁨으로 출발하자. 사람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밝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순례단은 전인미답의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성지 도보 순례의 길을 열었고 이를 통해 종단은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에 우뚝 서게 됐다"면서 "종단은 순례단의 소중한 전법 원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포교활성화 역시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순례를 통해 염원한 불교중흥의 길, 전법의 길에서 모두 함께 도반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치하도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중 전원에게 완보증서를 전달하며 순례공덕을 치하했다. 또 상월결사가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진행한 마곡사 예비순례, 국난극복 자비순례, 백담사 예비순례,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마음방생 평화순례, 상월결사 인도순례 등 모든 순례에 빠짐없이 동참한 호산 스님, 원명 스님, 대우 스님, 정충래, 이태경 씨 등 14명에게 원만정진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감사패를, 108원력문 제작 공로자인 윤재웅 동국대 총장,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 사무총장, 지정학 동국대 사무처장, 장영섭 불교신문 부장, 김정은 동국대 출판문화원 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상월결사는 인도순례 해단식 후 '대학생 전법 비전 선언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기도 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돈관 스님은 대학생 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공개했다. △수도권 10개 대학 불교동아리 신설 △지역 대학마다 지도법사 활동 장려 △전국 의과대학 불교학생회 연합회 결성 및 연합수련회 워크숍 개최 △대학생 인도성진순례 진행 등을 바탕으로 전법의 실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과 전법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은 △범해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덕문 스님(BBS불교방송 이사장) △윤재웅(동국대 총장) △채석래(동국대 의료원장)이며 전법위원은 △능원 스님(군종교구장)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지도법사단(원명, 설도, 본오, 대우, 하림, 재안, 주석 스님) △문종 스님(파라미타 사무총장) △영일 스님(정광고 교법사) △정충래(동국대 이사) △이상훈(교수불자연합회장) △박기련(동국대 건학위 사무총장) △지정학(동국대 사무처장) △장영욱(상월결사 법인 사무국장) △김광기(동국대의료원 기획처장) △이학주(동대부여고 교법사) △변대용(대불련 동문회장) △조용석(대불련지도위원장) △유정현(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서는 상월결사 발전기금으로 용화사 주지 지용 스님과 고(故) 자성 스님이 2500만 원을 쾌척했으며 이수홍 거사가 1억 원을 희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청래 의원 "문화재 원형 보존 지원"

5월 2일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놓고 불교계와 마찰을 빚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찰 문화재 원형 보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 최고위원은 5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서봉 스님과 이규민 前 의원이 배석했다.

5월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예방에서 정 최고의원은 사찰 무료 개방 후 나타날 문제들에 대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 최고의원은 "더 많은 국민들이 사찰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 원형 보존 등에 대한 지원과 개선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사찰 무료 개방에 따른 관람객 급증으로 수행환경 침해, 문화재 관리 난항 등 여러 문제들이 예상된다"면서 "은해사의 경우 무료 개방 후 관람객이 3~8배까지 늘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찰을 찾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한 문제도 많다. 제도 보완에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추본, 평화통일도량 3사 순례 시작

4월 29일, 안동 광흥사 등 순례 87개 통일도량 방문 목표로 활동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이하 민추본)는 4월 29일 안동 광흥사 등지에서 '평화통일도량 3사 순례'를 진행했다.〈사진〉

'평화통일도량'은 지역사찰 및 불자들의 평화통일 의식확산과 통일활동 대중화를 위해 민추본과 함께 정진하는 도반 사찰로 협약 후 연대활동의 첫 사업으로 진행한다. 순례를 통해서 평화통일도량은 협약사찰임을 다시 인식하고 순례에 참가하는 민추본 회원 및 불자들은 순례에서의 '평화통일법회'를 통해 평화통일 활동을 지속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첫 순례에는 민추본 회원 등 35명이 참가, 안동 광흥사, 봉정사, 연미사를 방문했다.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은 "인류의 모든 평화가 중요하듯이 남북평화 또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민추본에서 평화통일도량 협약요청을 했을 때 평화를 실천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화를 발원하는 도량인 봉정사에서는 당연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회원들에게 민추본의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연미사 주지 덕암 스님의 순례단을 환영하는 인사말씀과 제비원 미륵불 유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광흥사에서는 주지 범종 스님 법문, 평화통일발원문 낭독, 평화통일발원등 전달 등 '평화통일법회'가 진행됐다.

민추본은 2021년부터 '평화통일도량' 조직사업을 시작, 현재 87개 도량과 협약 중이다. 이번 순례를 시작으로 도량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

임은호 기자



추 한국불교와 불교언론을 위한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

김주일 현대불교 편집국장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법보신문 편집국 일동



2주년 동국대 건학위 "청년불자 양성 주력"

5월 2일 본관 중강당서 기념식
건학장학기금 17→50억원 확대
역대급 취업박람회 등 성과 多
'청년불자 양성' 신규과제 제시
새 건학장학생 41명 증서 수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2일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주년을 맞은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대학생 · 청년불자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이하 건학위원회)는 5월 2일 본관 중강당에서 건학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건학위원장), 이사 호산 · 원명 · 경우 · 종호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2021년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동국건학장학,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등 장학제도를 신설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장학기금의 토대는 자승 스님이 마련했다. 스님은 자신의 사재를 보시하고 선사화전을 열어 17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마중물로 각계각층에서 장학기금들이 답지했고, 현재 장학기금은 50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찰과 재학생을 연계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은 새로운 장학모델로 부상했다.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 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 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처음 개최한 교내 취업 박람회는 삼성전자, 테슬라 등 국내외 주요 기업 289곳이 참여해 역대급 취업박람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박람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됐다.

고문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청년불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회는 모든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며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여 학생들은 건학의 의미가 담긴 취지를 선명하게 새겨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자승 스님은 "대학생은 초중고 학생들을 이끌어줄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을 통한 자신감으로 사회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국발전과 불교중흥, 그리고 인류사회의 번영이 모두 하나의 필연적 인연임을 굳게 인지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재웅 총장은 2주년 주요성과와 올해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건학위원회 3년차 계획으로는 △학생취업 및 장학 △제2병원 건립 △디지털 대장경 제작 △고등교육 통합 확대 △청년불자 양성 △명상 체계 고도화 △건학이념 구현도서 발간 △건학이념 구현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평을 받았던 취업박람회를 오는 9월 다시 개최하며, 더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만들 계획이다.

장학사업은 선순환 모델 구축에 집중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장학금 수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졸업생들의 장학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디지털대장경 구축 사업은 미래형 K-부디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대장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화여고 인수합병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 및 사이버대학 인수도 추진된다.

동국건학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30명, WISE캠퍼스 8명, 의료원 3명 등 총 41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최대 6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으로 미래 한국을 이끌 엘리트 육성을 위해 지난해 신설됐고, 2기로 선발된 학생들이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 받았다.

숫자로 보는 건학위원회 2년

5,000,000,000	동국건학장학기금
10,000	2022 취업박람회 참여 학생
730	건학위와 함께한 날(5월 2일 기준)
570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생 수
289	2022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32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찰 수

佛母 계찬 조성 '석가삼불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5월 3일 지정 예고… '아미타구존도'도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선 후기에 활동한 승려 장인 계찬이 조성한 석가여래삼불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순천 동화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아미타여래구존도 등 총 4건에 대해 국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은 수조각승 계찬을 비롯해 인계, 영언 등 7명의 조각승들이 1657년(효종 8) 완성해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한 삼불상이다. 세 불상의 복장 유물을 통해 조각승 간의 협업과 분업,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공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불상을 조성한 계찬은 17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응혜와 승일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들은 계찬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문화재청은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은 제작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조성발원문 등의 기록자료가 존재하고 계찬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유일한 작품"이라며 "조선 후기 불상 양식의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한 작품"이라고 지정 예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여래구존도' 는 1565년(명종 20)이라는 제작연대가 정확한 조선 전기 불화로, 화기에 조성연대, 화제, 시주질 등이 기록돼 있다.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는 6점이 현존하는데, 국내에 있는 작품 중 유일하게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채색 불화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 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 불화의 형식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자, 156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선 전기 불화 연구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중대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며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있고,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그 사례가 드물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튀르키예 구호물품 전달

4월 29일~5월 1일, 현지 찾아
1만 4000명 대상 기초식품 등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4월 29일~5월 1일, 튀르키예 지진 진원지를 찾아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사진〉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인명피해도 크지만, 물질적인 피해와 함께 삶의 터전을 잃은 심리적 불안의 여파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29일~5월 1일 튀르키예 하타이주 레이한리 내 취약계층 2800가구(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마을 의약품, 식물성 버터, 식용류, 밀, 쌀 등 기초적인 식품으로 인도적 지원 최소기준으로 고려된 42킬로그램 분량의 5인 가족 한 달 식량 구호키트를 전달했다.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인 아민 하산 씨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이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이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싶다. 우리는 무슬림이지만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대부분인 저희들을 편견 없이 지원해주신 한국불교계에 아주 많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02)723-5101 임은호 기자

동국대-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위해 손잡다

5월 2일 건학위원회 최고위서 업무협약 체결



학교법인 동국대와 (사)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와 (사)상월결사가 대학생 전법 포교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동국대(이사장 돈관)와 (사)상월결사(이사장 자승)는 5월 2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학위원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사)상월결사 상임이사 원명 스님, 이사 경우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와 상월결사는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및 대학생 단체 지원 △대학생 장학사업 및 후원사업 △대학생 포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회 4차회의에서는 '청년불자 양성' 을 건학위원회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학생, 청년 포교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제3차 최고위원회 이후 변경된 건학위원회 구성 및 규정 변경 △2023년 기관별 건학위원회 중점사업 승인 △건학위원회 중점추진과제 승인 등을 의결했다.

향후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청년불자 양성' 을 위해, 합장의 생활화를 위해 '합장' 을 동국대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공포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 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공양기도문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내 모든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 을 게시하고 음원 제작 · 홍보, 동참 이벤트를 전개한다. 〈부처님생애〉, 〈불교성전〉에 대한 독서 릴레이와 소감문 공모전도 추진된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청년불자 양성은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라면서 "핵심사업 성공을 위해 동국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김주일 편집국장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직원일동

“덤으로 사는 삶,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힘써야죠”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1. 생명나눔 운동하는 일면 대종사

간 기증 받고 새생명 얻은 기억에
“새 생명 얻은 은덕 갚겠다” 서원
2005년 생명나눔 이사장 취임하며
희망 품은 환자들에게 자비 실천

30주년 앞두고 ‘건강한 사회’ 승화
근본적 생명존중운동 역사 펼칠 것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나눔 사회 실현될 때 불국 길 열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 나이 이제 마흔 다섯이죠. 23년 전 당시 스물두살 젊은이의 간을 이식받아 새로 태어났으니까요.”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누군가 세납을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한다. 일면 스님은 1982년 간경화 판정을 받은 뒤 20년 가까운 투병생활을 했다. 담당 의사로부터 “이젠 한 주도 못 넘긴다”는 진단을 받았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모든 것을 정리했다. 주위에서 다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처럼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 일면 스님은 지금도 수술을 한 날의 분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2000년 1월 8일 오전 10시 5분.

“불제자로 인과(因果)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 염라대왕이 물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왔다 대답하려고 기억하고 있죠.”

경주에서 태어난 일면 스님은 1959년 합천 해인사에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출가 그 해 9월,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었다. 34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경상도 지역 피해가 컸다. 당시 태풍은 지금까지도 기상청 관측 이후 최악의 태풍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스님은 태풍으로 집이 엉망이 된 난리통에서도 한 스님이 걸망을 지고 탁발하는 뒷모습을 보고 가슴 찡함을 느꼈다. 그 길로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섰다. 13세 때의 일이다.

일면 스님은 해인사에서 인생 스승을 만났다. 명허 스님이다.

명허 스님은 엄하디 엄한 수행승이었다. 절 살림살이도 단호했는데, 단돈 1원도 허투루 쓰는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루는 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갔죠. 어린 마음에 100원짜리 눈깔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지요. 장 본 내역을 살핀 명허 스님은 사탕 사 먹은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시주받은 은혜로 사탕 사 먹은 놈은 중노릇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두 시간 엎드려 참회를 구하고 부처님 전에 삼천 배를 치렀다.

시주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은사스님의 태도는 그대로 일면 스님에게도 이어졌다.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강원과 동국대 졸업 후 해인사로 돌아가 공양주를 자청해 생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패기와 의욕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탓일까? 일본 유학을 준비하며 학업과 사찰 소임을 이어가던 1982년, 처음으로 간에 이상이 나타났다. 간경화 1기 판정을 받았다. 젊어서 문제없다 생각했고 바쁜 생활 속 제대로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 그 사이 10여 년이 훌쩍 흘렀고 병환은 점점 깊어갔다.

1998~1999년에는 입원과 퇴원을 16회나 반복했다. 복수가 차고 혼수상태를 반복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약이라도 구해 먹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 몸은 점점 깡그리 말라가고 얼굴도 검게 변했다.

“부처님 전에서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부처님 시봉 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살 수 없으면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담담히 주변을 정리하던 어느 날, 극적으로 한 청년과 인연이 닿았다. 스물두 살의 뇌사자라고 했다. 앞서 새 생명을 기다리던 네 명의 환자에게서 맞지 않던 간이 스님에게 꼭 맞았다. 상반신 전체를 가로지르는 십자 모양의 수술 자국을 남긴 채 2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간을 이식받았다. 3일간의 혼수상태 끝에 깨어난 스님은 새로 태어났다. 수술 이후, 쇠진한 기력에도 생명을 주고 떠난 청년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온몸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재활에 힘썼다.

그리고 5년 후,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과 기증을 독려하는 공익법인. 이식수술로 새 생명을 얻은 일면 스님이기에 더한 적임자는 없었다.

일면 스님은 이사장을 맡으며 ‘이생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은덕을 갚겠다’ 는 서원을 세웠다. 장기기증은 장기 부전의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기에, 새 생명을 얻은 스님으로서 단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간다.

스님이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덕분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규모는 매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2000명이던 회원은 현재 15만여 명으로 늘었다.

일면 스님은 “조혈모세포와 뇌사시 장기기증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일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위하는 길”임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회원을 늘려갔다. 지금은 조계종 스님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했고 배우 김혜옥과 김용림, 송선미, 방송인 김병조, 국악신동 송소희 등 연예계 스타들도 홍보대사로 동참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아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불교계 내의 유교적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세수 77세를 맞은 스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지역과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 ‘장기기증 운동 포교사’로 활동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불우이웃돕기 등 1년 내내 빼곡한 생명나눔의 현장을 직접 챙긴다. 손에는 항상 각종 스케줄이 적힌 수첩이 들려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이식이 부족한 시기에 불교계의 척박한 토양에 생명공양과 나눔이라는 종자를 뿌려 온 지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일면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명나눔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고통으로 세상에서 숨 쉬고 사는 것 조차 힘겨운 이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30주년을 맞아 이제 생명나눔운동은 근본적인 생명존중운동과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그 역사를 승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생명공양이라는 일면 스님. 스님은 “나눔이 사회에 실현될 때 사람들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깃들어 이 땅에 불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1959년 명허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1964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9년 동국대 불교대학 승학과를 졸업했다. 조계종 제9·10·11·12·13대 중앙종회의원과 제3대 교육원장을 지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제38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내외 요직을 두루거쳤다.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3년 만해대상을 수상했고 2018년 종단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다. 2021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979년 동국대 졸업 후 해인사로 돌아와 공양주를 살고 있을 때 모습.



1999년 조계종 교육원장 재임 당시 방문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간경화 악화로 몸은 깡그리 말라갔지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2000년 간이식 수술을 마친 후. 쇠진한 기력에도 생명을 주고 떠난 청년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재활에 힘썼다.

제14회 * 생명나눔 걷기명상

* | 일시 | 2023. 5. 13.(토) 오전 10시부터 접수 *

|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사 장 황일면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정현숙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참가 대상
걸을 수 있는 분 모두

참가 혜택
참가자 전원 경품권, 기념품, 간식 증정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2시간 부여

참가 방법
단체_www.lisa.or.kr 접속 후 사전 접수
개인_현장 접수

준비 물품
편한 옷차림, 운동화

경품
노트북, LG코드제로,
애플워치SE, 자전거 등

오시는 길
3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
02-720-7720

제4차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총회

| 일시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 장 박종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고 문 김남명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사무총장 최상균

佛道 부산, 장엄등 점등…“평화 기원”

4월 28일, 부산 송상현 광장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식 봉행
호기놀이 등 전통문화 선보여
연등행렬 및 연희단 행사 장엄
‘부산엑스포’ 유치 발원도 겸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28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밝은 연등이 불을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부산연등문화제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4월 28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날 신나는 풍물패 공연과 한마음선원 연희단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간이 연등행렬과 함께 어린이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호기놀이 재현으로 전통문화의 역사 및 가치를 널리 알렸다. 호기놀이는 고려시대 어린이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진행한 민속놀이다. 어린이들은 집을 밝힐 연등을 만들기 위해 종이로 깃발을 만들고 마을을 돌며 쌀과 베를 구하고 연등을 만들 비용을 얻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의 호기놀이 시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고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 부처님 떡으로 알려져 있는 느티떡을 나누며 알려지지 않은 전통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느티떡 재현을 위해 부산불교 사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사찰을 찾는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개막 점등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 정사, 마나 스님 등 원로대덕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점등식은 △개회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환영사 △봉행사 △축사 △점등사 △축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호기놀이 △점등식 △연등행렬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들이 불법승 구호에 맞춰 점등을 하자 장엄등의 화려한 불빛이 송상현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오고가는 시민들은 장엄등 앞에서 사진을 찍고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기념했다. 장엄등은 불교를 전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민속적인 내용과 캐릭터 모습을 담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형 전통등 전시는 4월 28일 점등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총 17일간 빛을 밝힌다. 또 소구소망을 담은 소원등 달기 체험을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소원등 달기 체험비는 1000원이며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해 소외 이웃에게 회향된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5일과 6일 동안에는 각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가 무료로 운영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부산 원오사, 新 명상센터 중창불사 회향

4월 29일, 포교와 나눔 도량으로



부산 원오사가 4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오사 중창불사 준공법회’를 봉행하고 수행포교와 복지나눔의 최고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4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오사 중창불사 준공법회’를 봉행하고 수행포교와 복지나눔의 최고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법회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통도사 극락문도 스님 및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법요집 봉정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주지 스님 인사말 △격려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에게 포교 및 중창불사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주지 정관 스님은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 불사를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약정했다.

원오사 신축 명상센터는 연면적 1056㎡(약 33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다.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공양간이 마련됐으며 2층에는 요사채 및 접견실, 3층은 명상실 및 다목적실이 자리한다. 4층은 종무소와 쉼터로 구성되며 4층에서 바로 대웅전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 및 어린이도 편리하게 대웅전을 찾아 참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은사이신 명정 선사는 선방 공부 뿐만이 아니라 포교를 하는 것도 수행이라 말씀하셨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가 오늘 원오사에서 여러분을 맞으며 보려드릴 수 있게 된거 같다”며 “불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며 더욱 포교와 복지 나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원오사는 2006년 통도사 극락암 고원 명정선사가 운봉사를 인수하고 원오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 1주년 기념 전시회

4월 29일 대원각사서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가 4월 29일 대원각사 달빛금차문화원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불자환경오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안도 스님(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울산백련사 주지), 정찬 스님(도림사 주지) 외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부산불교환경연대는 낙동강 정경과 철새 사진 전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했다. 이어 무소유나눔페스타를 진행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나누며 무소유를 직접 체험하도록 도왔다.

안도 스님은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4월 20일 창립한 부산불교환경연대 활동이 어느새 1주년을 맞이했다. 생명와 생태 그리고 환경운동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 일임을 지난 1년 동안 활동 속에서 배웠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걸어갈 준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 1주년 기념 전시회는 낙동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달빛금차문화원 내에 낙동강에 사는 텃새와 철새들의 사진들을 전시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도구불교聯, 석가탑 봉축탑 불 밝혀

4월 29일, 영도구 봉래교차로서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가 4월 29일 영도 봉래교차로 교통섬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도구불교연합회 봉축탑 및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호법 스님,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이사장 하림 스님, 사상구불교연합회장 성림 스님, 법화종부산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기재 영도구청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

점등식은 개식선언으로 시작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발원문, 인사말, 축사, 점등,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호법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자비의 빛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 오신 기쁜날을 맞아 미약한 우리들도 부처님 닮으려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진구불교聯,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5월 2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서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세운)가 5월 2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산을 대표하는 번화가인 서면 중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시민들에게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점등식 후 오후 6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기도하며 부산시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성금을 모금한다. 기도 시간에는 거리를 오고가는 시민들이 성금을 십시일반 보시하고 후원금은 소외 이웃을 위해 회향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점등식은 먼저 서해수호 전사자 55인 및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재로 진행됐다. 개회사에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점등, 내빈소개, 봉행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계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점등식에는 혜총 대종사와 회장 영제 스님, 보원 스님, 법봉 스님, 시광 스님, 원상 정사를 비롯해 서병수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혜총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지 않았다면 우리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한다면 행복의 첫걸음을 걷는 것임을 말씀해주셨다”며 “부처님이 말씀해주신 인과의 법칙을 알고 지혜로는 불자와 시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제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히는 자비의 등불은 부처님의 법을 밝히고, 각자의 마음에 있는 자성을 드러내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광명”이라며 “오늘 무명을 밝히는 등불을 통해 탐진치 삼독이 묻기 전의 마음자리를 찾아서 이 세상을 고통이 없는 연화정토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연종 · 거인병원 MOU체결

5월 3일,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 연화홀에서



대한불교 법연종(종정 조연)과 부산 거인병원(대표원장 이승준)이 5월 3일 법연종 부산본원 연정사내 연화홀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은 법연종과 거인병원이 협력해 불자들의 건강 향상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의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크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으로 전국에 있는 법연종 모든 신도들은 거인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연종은 회주 법연 스님이 1998년 창종해 소의경전을 〈지장경〉으로 삼아 지장신앙의 구현을 목적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151개 사찰이 있으며 경남 합천 황매산 법연사가 본산으로 지난 법연사 낙성식 당시 3만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눈길을 모았다.

거인병원은 그동안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눔행사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불교봉사신행단체인 사단법인 미소원, 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씨름협회, 부산 16개 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거인병원은 관절 및 척추, 스포츠의학을 전문으로 하며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가 있다. 개원 당시 작은 탐욕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환자만을 위해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로 거인이란 상호로 출발했다.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전인적인 의료를 지향하며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의료진으로 구성돼 신뢰를 더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김종숙 법연종 신도부회장과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과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평소 김종숙 법연종 신도부회장은 어르신들이 사찰 순례 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것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수소문 하던 가운데 인연이 있던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과 연락이 닿게 되어 협약식을 맺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 법연종 법연원 이사, 김종숙 법연종 신도부회장, 김윤주 법연종 사무총장과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 김현우 원무부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허성 법연종 이사는 “이번 거인병원과 MOU를 통해서 우리 신도들이 건강히 생활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사상구불교聯 봉축점등식

5월 1일, 사상 르네시떼 광장서



부산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림)가 5월 1일 사상 서부터미널 르네시떼 광장 특설무대에서 봉축 연등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 식전행사로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무형문화재 9호 영산재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트롯장구, 팝페라가수, 해금나리, 색소폰, 가수 선미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본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내빈소개 △점등 △발원문 △봉행사 △봉축사 △격려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은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구민들을 위한 나눔과 실천을 멈추지 않고 원력을 다해주셨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눈은 항상 밝은 곳을 향하기 마련”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15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4월 2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4월 2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5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생명나눔은 매년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고 걷기 명상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명상 걷기대회 개막식에서 부산생명나눔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걷기대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부본부장 자인 스님, 총무이사 성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시민들의 다채로운 참여를 위해 부산생명나눔은 걷기대회에서 싱잉볼을 통해 명상을 체험하도록 도왔으며 생명초 만들기, 비누 만들기, 싱잉볼 체험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남해불교聯, 불기2567년 봉축 점등식

4월 30일,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서



남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각)가 4월 30일 남해 유배문학관 앞 광장에서 불기2567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남해불교연합회 회장 성각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화방사 선문 스님, 운대암 도응 스님, 법흥사 정안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염불암 경진 스님, 낙가사 성준 스님, 화방선원 종문 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임태식 의회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남해불교봉사단, 각 사찰 임원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인사말, 법어, 축사, 발원문, 점등식, 사홍서원, 정근 순으로 진행됐다.

남해군불교연합회 회장 성각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경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길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오늘 환한 불을 밝힌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탑사 계묘년 산신재 · 이웃사랑 백미 나눔

㈜복성산업개발, 진안군에 백미 3000kg 기탁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 전통의식으로 집전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탑사가 계묘년 봄 마이산 산신재를 봉행했다.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널리 알려진 진안 마이산탑사(주지 진성)가 계묘년 봄 마이산 산신재를 봉행했다. 4월 28일 탑사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마이산 산신재는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들의 집전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산신재에 앞서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복성산업개발, ㈜태원산업개발, ㈜태원에서 후원한 이웃사랑 백미 10kg 300포대(3,000kg 9백만원 상당)을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박금태 회장과 함께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전달했다.

'마이산 탑사 자비의 백미를 붓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이산 탑사 산신재와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은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부회장 지화장 도홍 스님, 익산 삼불암 법정 스님, 태봉사 법진 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등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과 전춘성 진안군수,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전문순 부회장, 이경희 (주)혁신금속 대표, 윤복길 마이산탑사 신도회장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하신 이갑룡 어른께서 1885년부터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월 9일에 산신재를 봉행하고 기금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한다"며 " 뜻 깊은 산신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 어르신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이러한 백미 나눔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진안 군민들에게 이렇게 쌀 전달식도 하면서 산신기도를 봉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자비의 쌀을 기탁해 주신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이어진 마이산 탑사 봄맞이 산신재에서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산신기도, 산신불공, 산신청, 신중작법, 39위 신장법문, 천지기도가 진행됐다.

익산 관음사, 대웅전 준공 · 점안법회 봉행

5월 2일 보물 목조보살 입상
보호각 낙성도 함께 진행돼


익산 관음사 보물 1842호 목조보살입상 보호각(대웅전) 준공식과 부처님 점안식이 봉행됐다.

익산 관음사 보물 1842호 목조보살입상 보호각(대웅전) 준공식과 부처님 점안식이 봉행됐다.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는 5월 2일 새로 준공된 대웅전 앞 마당에서 준공식 및 석가모니불, 보현보살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석가모니불과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점안법회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회장 영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집전하여 여법하게 봉행됐다.

준공식에서는 명종 5타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보현행원, 내빈소개, 경과보고, 환영사, 영상시청, 감사패 증정, 법어, 축사, 축가 축하공연, 발원문 낭독, 테이프커팅, 사홍서원, 대웅전 현판 제막이 진행됐다.

금산사 불사도감 성우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이 보물 1842호 지정되고 故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사재 출연과 불자들의 모연을 통해 주변의 토지 750평을 매입하여 대웅전(보호각) 준공식을 갖게 됐다고 보고했다.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불사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속에 불사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자들의 편의시설도 마련하고 포교에 앞장서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관음사가 익산불교의 중심이 되고 신도분들이 편안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점안식의 의미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는 불이사상을 생각하는 기회"라며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우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 前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전북불교원탁회의 본부장 평상 스님,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 각진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前국회의원, 최종오 익산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주영호 관음사 신도회장,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등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본찰 금산사, 미륵강탄재 · 미륵십선계 수계법회

5월 1일 봉행…도영 스님 법문


조계종17교구 김제 금산사가 제1257주년 미륵강탄재 및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신앙의 본찰 조계종17교구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제1257주년 미륵강탄재 및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5월 1일 금산사 미륵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미륵강탄재는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불교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주지 일원 스님, 부주지 원혜 스님, 종회의원 화평 스님, 각진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남고사 주지 석초 스님,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을 비롯한 17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하유호 금산사 신도회 부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한 불자 500여명이 동참했다.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거대한 미륵불을 만든 후 혜공왕 2년(766)에 연못을 참숯으로 메우고 미륵전을 건립한 5월 1일을 미륵강탄일로 정하고 매년 7일간 미륵강탄재를 봉행해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금산사는 우리나라 미륵사상의 본찰로서의 사격을 바로 세우고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전국에 미륵십선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미륵강탄재에 동참한 불자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보시와 계행, 자비심으로 수행정진해 미륵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는 도솔천에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륵강탄재 후에는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전계아사리 금산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유나 월강일원 스님, 응묵 스님의 인례로 미륵십선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도영 대종사는 미륵십선계목을 상세하게 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며 "수계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충만한 안락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수계제자들은 믿음과 실천을 다짐하는 발원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봉축기원탑 점등

전주역 분수대, 미륵사지 동탑
'전주한지'로 모형 제작


전북봉축위는 4월 29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알리고 전북불교의 발전과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원탑 점등법회가 봉행됐다.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는 4월 29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전북부처님 오신날 봉축기원탑 점등식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이라는 주제로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염송문 낭독, 대회사, 봉축사, 축사, 축가, 점등선언, 발원문 낭독, 탑돌이,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으로 봉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북봉축위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북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한 봉축기원탑을 선보였다. 익산 미륵사지 동탑을 1/5로 축소한 봉축 기원탑은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지한지로 제작됐다.

전북 봉축위원회 진성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불자들은 지구환경을 돌보지 못한 참회의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의 등을 밝히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사암聯, 봉축탑 점등법회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기원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창원특례시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법회가 봉행됐다. 창원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안, 성주사 주지)는 4월 27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창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성주사 법안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세심사 호정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진해 천웅사 성우 스님, 미타사 선혜 스님, 정법사 송정 스님, 안국사 성오 스님, 길상사 월서 스님을 비롯한 창원지역 스님들과 홍남표 창원시장, 김이근 시의회 의장, 경찰불자회, 경남포교사단 등 각급 기관장들과 신행단체 회원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봉축탑 점등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음성공양, 내빈소개, 점등사, 축사, 축원, 점등, 정근(탑돌이), 사홍서원,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聯, 태화강 연등축제 봉축 점등식

울주 간월사지 남북삼층석탑 모델 봉축탑 점등



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가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태화강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4월 28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봉축탑 점등식은 울산 신흥사 인경스님의 사회와 신흥사 약수암 감원 진원 스님의 집전으로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봉행사, 봉축사, 축사, 축가(봉축연합합창단), 봉축점등식, 사홍서원, 내빈 차공양, 회향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이날 점등식에는 해남사 혜원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지심인당 선덕 정사, 석남사 천조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여여선원 효암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신흥사 인경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화봉선원 기탁스님, 도솔암 덕송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을 비롯한 울산 지역의 사찰 스님들과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 김기현 국회의힘 당대표,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김기환 울산시의회의장, 천창수 울산교육감, 서동욱 남구청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제559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불교와 유교의 합동추모재가 밀양 표충사에서 열렸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는 4월 29일 표충사 사당에서 제559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불교와 유교의 합동추모제 형식으로 봉행된 이날 춘계향사는 명종5타, 삼귀의례, 반야심경, 불교제향 종사영반, 내외빈 소개, 헌다, 헌화, 유교제향 석전의례, 추모사, 주지스님 인사(표충사 진각 스님),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표충사 스님들의 종사영반과 헌다, 헌향의 불교제향 의식에 이어 김성규 밀양부시장을 초헌관으로 한 유교제향 석전의례가 봉행됐다.

봉원사 지태 스님은 추모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면서 불교의 계율과 충돌하면서 개차법을 통해 전쟁에 참여했다"며 "이러한 스님들의 구국정신을 되살려 이 나라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불교사암聯, 봉축 점등식



전북 정읍사암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내장사 주지)는 5월 1일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개최했다.〈사진〉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정읍 연지아트홀 로터리에 불을 밝힌 정읍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은 불국사 석가탑을 모형으로 제작돼 부처님오신날까지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게 된다.

이계숙 불자의 사회로 진행된 점등식은 아랑고고장구 팀의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내빈 소개, 봉축사, 축사, 봉축시 낭독, 장학금 전달, 공로패 전달, 음성공양, 사홍서원,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은 온천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뒤덮인 신록의 계절이며 희망찬 계절에 인천의 대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날"이라며 "점등식을 계기로 모든 불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대 이집트 사원 유적서 불상 발견 화제

베레니케 사원 유적지서
71cm석조불…연꽃조각도
고대 인도와의 교역 증거
이집트 현지 조성 가능도

박영빈 객원기자

이집트 홍해 해안가의 고대도시 베레니케의 사원 유적지에서 석조 여래입상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4월 27일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는 "초기 로마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이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스카이 뉴스 아라비아', 'ABC 뉴스' 등의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미국-폴란드 공동 고고학 발굴단은 고대 이집트의 항구도시였던 베레니케의 이시스 사원 유적에서 초기 로마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을 발굴했다. 이집트 관광유물부에 따르면, 공동 고고학 발굴단은 1994년부터 발굴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 박물관 측은 "불상이 발견된 이시스 사원은 고대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에게 봉헌된 사원으로 당시 이시스 여신 외에도 베레니케를 오가는 많은 외국인들의 신들을 위한 공간도 공유하던 복합적인 신앙의 거점"이라며 불상이 이시스 사원에서 발굴된 경위를 추정했다.

고야즈다 단장은 "불상은 인도에서 온 개인이나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사원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발굴된 불상은 입상의 형태로 높이는 71cm 가량의 석조불이다. 몸의 우측이 일부 결손돼 있으나 왼손에는 가사자락을 쥐고 있는 형태이며, 아래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조각돼 있다. 불상의 머리 주변에는 그의 태양 광선이 뻗는 형태의 두광이 있으며 나발은 곱슬머리의 형태로 조성됐다.

마리우스 고야즈다 폴란드 측 발굴단장은 "발견된 불상은 석질분석을 통해 이스탄불 남부에서 채석된 돌로 보인다. 불상의 형태에서 베레니케 도시 현지, 혹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조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스티븐 시드보팀 미국 측 발굴단장은 "이시스 사원 발굴 도중 산스크리트어로 된 비문도 별도로 발견됐다.


베레니케 사원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
사진출처=이집트 박물관

내용에 따르면 3세기 중반의 로마황제 필리푸스 아라부스의 치세라고 쓰여 있으나 비문과 불상의 조성연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불상의 연도가 훨씬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사원에서 그리스어로 된 비문들도 발견됐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서기 1세기까지 올라간다"면서 "또한 2세기 인도의 사타바하나 왕조의 동전 2개도 발견됐다"며 불상의 정확한 조성연도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스타파 와지리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베레니케에서 발굴 작업 중인 미국-폴란드 공동발굴단의 발굴에서 로마시대 동안 이집트와 인도 간 무역관계가 있었다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고대 사서에서 인도인들이 베레니케에서 향신료와 상아, 보석과 같은 교역품을 거래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불상의 발굴은 그 기록들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자말 알사마타위 중부 이집트 유물 국장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상과 산스크리트어 비문 그리고 인도 동전의 발견은 당시 이집트에 왔던 인도인들이 고대 이집트 문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600년 불교사원을 시크교 유적이라니…

인도 시크교도 단체 주장에 불교 단체와 분쟁

인도의 한 불교 사원을 둘러싸고 불교와 시크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시크교가 해당 사원이 시크교 사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월 29일(현지시간) 더힌두(The hindu) 보도에 따르면, 소수민족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는 지난달 24일 "메추카에 위치한 구루 나낙 데브(Guru Nanak Dev) 관련 시크교 유적지가 불교 사원으로 개조됐다"는 시로마니 구르드와라 파르반닥 위원회(the Shiromani Gurdwara Parbandhak Committee, SGPC) 주장과 관련해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 정부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발단은 페마 칸두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었다. 페마 칸두 주장관은 지난달 8일 메추카 인근 불교 순례지인 네페마 셀푸 드룹캉을 방문한 후 SNS에 "티베트 불교의 구루 파드마삼바바가 명상했던 불교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축원을 올렸다"고 적었다.

SGPC는 해당 사원이 당초 시크교의 사원인 구르드와라였으나 불교 사원으로 개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페마 칸두 주장관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 지역 불교 단체인 네낭 문화개발협회(The Neh-Nang Cultural Development Society, NNCDS)는 "SGPC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해당 사원은 구루 파드마삼바바가 명상했던 동굴에서 기원한다. 이 동굴은 600년 이상 메추카에 거주하는 불교 공동체의 순례지였다"고 반박했다.


구루 파드마삼바바가 명상했던 곳으로 알려진 불교 순례지. 사진출처=더힌두

이어 이들은 "1987년 시크교도 병사들이 불상을 철거하고 시크교 숭배물을 가져다 놓았다"며 "당시 불교도들의 유일한 잘못은 시크교도 병사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쓴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87년 이전까지 이 순례지에서 시크교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시크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불교 순례지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민족위원회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5월 해당 지역과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전쟁 중 공출된 범종 82년 만의 귀향

금속 공출된 것 환지본처
17세기 주조…400kg상당

2차 세계대전 중 총탄과 같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공출된 범종이 82년 만에 환지본처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난을 피하여 원형 그대로 돌아온 기적적인 이야기를 지난 4월 28일 일본의 '니가타 방송'이 특별보도했다,

니가타현(新潟県) 이즈모사키쵸(出雲崎町)에 소재한 만인지(万因寺). 400여년 전 창건돼 오랫동안 지역 불자들의 중심점이 되어온 사찰이다.

만인지에는 17세기경 주조된 범종 한 구가 소장돼 있었다. 높이 약 130cm, 무게 약 400kg의 범종은 당시 신자들의 보시로 조성된 것. 그러나 이 종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일본정부가 내린 금속 공출령에 의해 압수당했다.

만인지의 주지 다카하시 소쿠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길 바라며 울리는 범종이 전쟁에 희생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82년 만에 귀향한 만인지의 범종. 사진출처=니가타 방송 뉴스화면 캡쳐

용광로에 녹아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인지의 범종은 1993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소쿠엔 스님은 "이시카와현에 소재한 사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절에 만인지의 범종이 있다는 소식이었다"며 뜻밖의 발견을 말했다.

만인지에서 300km나 떨어진 이시카와현(石川県)의 이가쿠지(以覚寺)에서 온 편지에는 만인지의 범종이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었다. 공출령으로 압수당한 일본 전국의 범종들은 도쿄의 철공소로 반입됐고, 종전 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공장 측은 종을 쌀과 교환했다. 그 중 공장과 인연이 있었던 이카쿠지 역시 종을 공출당한 것을 공장 측이 기부한 것이 바로 만인지의 범종이었다.

이카쿠지 측은 "기부 받을 당시에는 어디에서 온 어떤 범종인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후 1991년, 태풍으로 종루가 무너져 범종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만인지의 범종인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종의 내력이 밝혀지고서 만인지의 주지스님이 이가쿠지를 방문하여 이야기한 끝에 범종을 만인지로 환지본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동의 문제를 비롯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과정에서 과정이 길어졌고, 드디어 4월 26일 범종이 82년 만에 귀향하게 됐다.

양 사찰의 주지스님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가쿠지의 종루에서 범종이 내려졌다. 이가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오랫동안 소리를 들어온 범종이다보니, 원래 자리라곤하나 떠나보내기 섭섭하다"며 종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만인지 측은 종을 돌려받는 대신, 새로운 종을 주조하여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만인지의 법당 한 켠에 만들어진 거치대에 다시 걸린 범종은 바라보며 소쿠엔 스님은 "뭐라 말이 니오지 않는다. 그저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전쟁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평화의 소리를 울리길 바란다"며 범종을 되찾은 소감을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사찰 '무지개 깃발' 불 탄 채 발견

지역 경찰, '증오범죄' 판단
주지 "불교기는 비차별 상징"

미국 캘리포니아 한 사찰에서 무지개 깃발이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증오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월 28일(현지시간) ABC7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위치한 불교 사원에서 지난달 25일 무지개 깃발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무지개 깃발은 전 세계 모든 불교 종파의 연대와 우애의 상징으로, '불교기'로 통용되고 있다. 또 성소수자(LGBT) 운동의 깃발도 무지개색으로, 인종·성·성적 취향 등에서의 평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전날 밤 7시께 불교기에 불이 붙었다. 인근 주민인 목격자는 화재 발견 직후 호스를 이용해 불을 껐으나, 누가 불을 낸지 보지는 못했다고 알려진다.

사원의 주지인 그레고리 깁스 스님은 "직접 손으로 칠한 깃발이 수년 동안 사찰에 전시돼 왔다"며 "2주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이에 대해 불평한 적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인 4월 6일 한 남자가 사찰에 방문해 깃발에 대해 불평하며 깃발을 내리길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스님은 깃발을 내리길 거부했다.



무지개 깃발이 걸려진 패서디나 한 불교사원 앞. 사진출처=ABC7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간주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신원 미상의 남성이 사찰 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깁스 스님은 "불교기는 '비차별'에 대한 불교도들의 근본적인 약속"이라며 "불교는 인종과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7대성지 11일
룸비니, 보드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르 등 7대 성지와
타지마할 등 관광까지 포함한 꽉~찬 일정입니다.


바이칼/몽골 5박6일
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까지!


스리랑카 5박8일
남방불교의 중심지 스리랑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
담불라 동굴사원 등을 순례합니다.


라오스 3박5일
다양한 액티비티의 천국 방비엥,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루앙프라방,
라오스의 중심 비엔티엔까지!


대만 4박5일
대만 최대 불교성지 불광산사와,
법고산사 등 대표 순례지와
야류해양공원, 온천호텔 휴식까지!


동남아
방콕/아유타야 3박5일 화려했던 불교문화가 남겨진 도시
치앙마이 3박5일 고유의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곳
베트남/캄보디아 3박5일 죽림 선종파의 탄생지+신비의 왕코르와트


일본
도쿄/하코네 3박4일
오사카/교토 3박4일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의 대표 도시 도쿄와 오사카, 시코쿠 등 순례를 떠나봅니다.
필수 사찰 포함, 관광, 휴식, 먹거리까지!


중국
무릉도원 장가계 3박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다시 열린 중국 하늘!
세계자연유산, 장가계+원가계+천문산
백두산(서파/북파) 등을 만나봅니다.

출발일, 인원수, 이용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사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 사진이 되다

유병용 사진전 '절로 절로 저절로'
법련사 불일미술관 5월 10~16일

봉암사 등 풍경사진 100여 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진가 유병용이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법련사 (송광사 분원) 불일미술관에서 초대전 '절로 절로 저절로' 를 개최한다.

50여 년 동안 장미, 들꽃, 인물, 도시풍경 등에 집중했던 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자신이 찾았던 200여 곳의 절 풍경 가운데 100여 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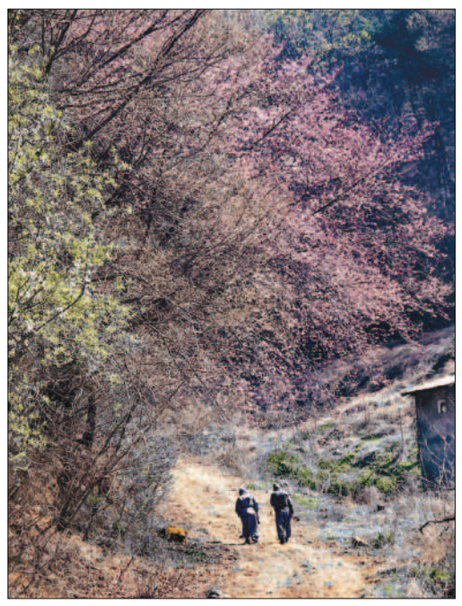
이번 작품은 젖은 땅을 열과 정성으로 말리던 사람들, 처연하게 들리던 처마 끝 풍경소리에 담긴 불자들의 꿈, 결 좋은 바람의 속삭임을 위안의 귓속말로 절절히 풀어 놓은 듯하다. 유 작가는 이런저런 일로 찾았던 절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 같다고 말한다. 유 작가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큰스님과 차를 마시며 귀한 법문을 듣기도 했고, 속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스님의 일상을 보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카메라에 담았던 사진들이다.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산사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유 작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빛과 사람의 온기로 보듬어지는 절집을 한순간의 예술, 즉 위안의 문신인 감성 언어로 채색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가 박제된 무한의 시간을 인화지에 풀어놓으면 사진 속 마른 잎에는 피가 도는 듯하다. 무심한 구름 몇 조각에도 창포빛 꿈이 담긴다. 회색빛 가슴에 푸른빛이 돈다. 깊고 적막한 산사가 미소 짓는다. 산사를 감도는 바람 한 줄기, 빛의 편린들, 계절의 수런거림이 작품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유 작가는 "나의 사진은 보기에 편하다. 특별한 기교를 부린 것도 없고 해석이 난해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사진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진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이번 사진전 제목도 편하게 짓고 싶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청산(靑山)도 절로 절로 녹수(綠水)도 절로 절로 / 산(山) 절로 물 절로 산수(山水) 간(間)에 나도 절로 /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절로' 라는 시구(詩句)가 도움을 주었다. 좋은 사진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절 저 절 다니며 마주했던 여러 얘기를 누구라도 쉽고 편하게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몇 년 전 노스님께서 열반하시어 매주 수요일 청도 운문사, 담양 부용암, 안동 봉서사, 당진 안국사, 세종 광덕사 등 이 절 저 절 다니며 칠칠일을 지낼 때 그 큰 카메라를 메시고 모든 과정을 찍으시고 그날그날로 정리하시더니 49재를 지낸 후 두툼한 기록 사진집을 봉정해 주셨다. 이번 전시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낸 한 장의 사진이 시인이 쓴 시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 더 심금을 울려주는 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고 평했다.


유병용 作, 서산 간월암.


유병용 作, 예산 묘법사.

시인 김삼환은 '절로 절로 저절로' 사진전을 "절의 일상, 풍경, 도구, 기원, 생사, 계절 등 절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았다.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노력과 예술가적 앵글의 혼이 잘 혼융된 장기간의 결과물임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언어는 보여지는 대상 뒤에 숨는다. 각자 적당한 위치에서 자신의 눈으로 작품이 가르키는 대상을 바라보면 된다"고 평했다.

유 작가는 현재 마포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300여 년 고찰 석불사 종무실장이며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의 유발 상좌로 '웅산' (雄山)이라는 수계명도 받았다. 그는 남도의 작은 포구 법성포에서 태어났다. '성인이 불법을 들여온 성스러운 포구' 라는 뜻의 지명에서 태어났으니 태생적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다. '저절로' 인데 '저절로' 가 아니고 운명적으로 절을 만났다. 1971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첫 월급으로 카메라를 구입해 사진을 시작한 이후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수많은 그룹전에 참가했다. 1988년 1월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40년간 근무한 은행 은퇴 후에도 사진가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을 학문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 은행 재직 시 재능대학교 사진과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고, 호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50여 년 동안 은행원, 사진가, 사진 교육자로 활동해왔다.

1988년 '장미' 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고 1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사진집 〈ROSE (1988년)〉 〈들꽃, 그 투명한 향기 (1990년)〉 〈포기해 봐 뭔가 있을 거야 (2006년, 사진예술사)〉 〈Instax_62×99mm (2008년, 사진예술사)〉 〈사진, 말 없는 시(2017년, 사진예술사)〉 〈절로 절로 저절로 (2023년, 하얀나무)〉를 발간했으며, 수필집 〈바보 초상 - 은행원 일지(1991년, 한마음사)〉 등을 출간했다.

사찰 인장으로 살펴보는 불교역사

특별전 '사찰 인장(印章) 새롭게 만나다'
송광사성보박물관 5월 15일~8월 15일

송광사 인장·관련 자료 등 70여 점 전시
사찰 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 의미


송광사 불법승보인.


통도사불종찰원장인.


해인사 불법승보인.


송광사 인주함.

성보 가운데 인장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이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삼보종찰(三寶宗刹) 소장 인장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도사 소장 인장과 인장함 등 관련자료 17점과 해인사 소장 인장 및 관련 자료 27점, 송광사 인장 및 관련 자료 30점 등 7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번 인장 특별전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31본산 본말사제도 시행 전에 이미 수사찰(首寺刹)을 중심으로 한 수말사(首末寺)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예로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에 각 지역의 수사찰임을 증명하는 인장들이 남아 있다.

또한 그동안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 '불법승보인(佛法僧寶印)' 이 1457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인사의 삼보인(三寶印)은 인장의 몸통에 해당하는 인신(印身) 윗면에 음각으로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 이라 새겨져 있어 1457년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해 2월 세조가 신미(信眉, ?~?)스님 등에게 명해 해인사 대장경의 제3차 인경을 진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 6월에 세조가 예조에 명을 내려 "불법승보(佛法僧寶) 4자를 새긴 삼보인(三寶印)을 주조(鑄造)해 지평(砥平)의 용문사(龍門寺)에 보내라"고 했다는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세조는 6월에는 용문사, 그리고 〈세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8월에 해인사에 각각 삼보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문사는 세조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로 매년 봄가을에 식염(食鹽)을 주기도 했으며, 1456년 즈음에는 수륙사(水陸社)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사찰 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찰 인장은 단순한 인장이 아니라 당시 사찰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사찰 인장은 개별 사찰에서 사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조(禮曹)에서 제작돼 각 사찰로 발급됐다. 이는 관인(官印)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용도가 폐지되거나 주지 교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관아에 반납한 후 다시 받아와 사용했음도 〈인신등록(印信謄錄)〉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삼보사찰의 성립과 인식은 당시 불교계 내에서만 통용되던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 나라로부터 공인을 받아 관련 인장을 발부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통도사의 '불종찰원장인(佛宗刹院長印)', 해인사의 '법종찰총섭인(法宗刹摠攝印)', 송광사의 '승종찰원장인(僧宗刹院長印)' 이 그것이다.

사찰 인장에는 보통 4자에서 9자까지 새겨 넣는데 여기에는 각 시기별 사찰 승직(僧職)의 명칭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일례로 송광사의 경우 주지(住持)는 보조국사 때부터 1831년까지 사용되었다가 1832년부터 1902년까지 총섭으로 불렸고, 1903년부터 1904년까지는 '섭리', 1905년부터 1911년까지는 '판사', 이후 오늘날까지 '주지' 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련 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완 기자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순례전문가가 들려주는 방방곡곡 절집 설화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목경찬 지음
담앤북스/1만6800원



▲저자 **목경찬**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유식불교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번역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여러 불교대학에서 불교 교리 및 불교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해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사찰기행' 강좌를 열었고, 인터넷 카페 '저 절로 가는 사람(cafe.daum.net/templegoman)'에서 사찰 문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유식불교의 이해〉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정토, 이야기로 보다〉 〈관음신앙, 33개의 나침반〉 〈지장보살, 원력에 스며들다〉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저 부처님은 엉덩이가 제일 멋있어."

신심 깊은 불자라면 "불경스럽다"며 화들짝 놀랄 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 '세상에 부처님을 보고 엉덩이가 제일 멋있다니….' 저자를 따라 천안 각원사를 참배하며 청동대불을 바라보던 어느 보살님이 남긴 표현이라고 한다. 그 보살님은 어떤 연유에서 청동대불을 보고 엉덩이가 멋있다고 떠올렸을까.

저자는 놀라우면서도 조금은 충격적인 그 표현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당사자에게 묻진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그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첫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엉덩이에 보살님의 삶이 녹아들었을까. 독자에게도 상상을 권유한다.

흔히 문화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한다. 조금은 거창해보이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엉덩이가 멋진 부처님, 바로 그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에 이야기를 더해 절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설화를 전문 이야기꾼이 들려준다.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사진=이정운 · 채재혁 · 이원호(공유마당)

돌부처님이 들려주는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부터
숨은 숫자들이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책의 첫 장인 '돌부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는 여기저기 숨어 있는 부처님들이 품은 기상천외한 이야기부터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슬픔과 아픔이 함께하는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부처님 이야기를 모아 전한다.

누구보다 잘생긴 얼굴을 자랑하는 남산 보리사의 일명 '장동건 부처님', 얼굴만 씻은 것처럼 몸통은 까맣고 얼굴은 하얀 중원 미륵사지 미륵불, 동선을 따라 걷다 보면 엉덩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천안 각원사 청동대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다.

두 번째 장인 '열두 동물과 나누는 법담'에서는 전각과 탑, 석등 등 여러 곳에 숨어있는 십이지신 동물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자신의 몸을 불속에 내던져 부처님께 공양한 원숭이 이야기나 돼지로 세상에 나온 보현보살 이야기,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고양이 밥을 먹은 쥐 이야기는 어렵게 여겨지는 불교 교리를 무엇보다 쉽게 알려준다.

세 번째 장 '사찰 속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는 일주문, 염주의 개수, 타종 횟수 등 절과 연관된 숫자들을 통해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한다. 모두 그동안 울산 백양사에서 출간하는 〈백양〉,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서울 봉은사의 〈판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법회와 설법〉 등에 연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목경찬 작가는 "사찰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꾼이다. 고전 이야기도 들려주고, 새로운 이야기도 창작해 재미있게 들려준다"며 "어릴 적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처럼 부처님 가르침이 들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부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있다. 두드러진 모습으로는 32가지 특징이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면 80가지 특징이 더해진다. 이를 32상 80종호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 상호라고 한다. 멋들어지게 나투신 부처님을 '저 부처님은 상호가 원만하시다' 라고 표현한다. 가령 경주 남산 보리사 부처님은 불상 연구가 사이에서 '장동건 부처님'으로 불릴 만큼 상호가 원만하다. – '시대를 닮은 부처님 얼굴' 중에서

아무리 부리부리 부릅뜬 사천왕의 눈이라도 흰 눈자위에 검은 눈동자 모습인데, 칠장사 사천왕의 눈은 거꾸로 새까만 눈자위에 흰 고리눈이다.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눈자위다. 작가는 검은 눈자위가 신비롭고 무궁한 우주의 광막한 어둠 같기도 하고, 반면에 무명의 깊은 바다 같기도 하다고 느꼈다. 여인의 말하지 못할 고통과 비애를 다 빨아들이고도 남는다고 보았다.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 '배불뚝이 신장, 슬픈 눈의 사천왕' 중에서

용과 관련된 창건 설화는 금강산 유점사, 경기 여주 신륵사, 전남 장흥 보림사 등 여러 사찰에 전한다. 이러한 설화는 어찌 보면 다른 이가 잘 살던 곳을 스님이 빼앗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설화나 전설은 상상일 때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나타낸 은유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에 대항하는 용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 불교에 텃세를 부린 기존 토착 세력이라고 풀이한다. – '용, 상상의 동물이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중에서

이처럼 4대주, 해와 달, 수미산, 욕계천, 색계천 등을 합하여 하나의 세계로 할 때, 천 개의 세계를 소천(小千)세계, 천 개의 소천세계를 중천(中千)세계, 천 개의 중천 세계를 삼천대천(三千大千)세계라고 한다. 따라서 삼천대천세계는 해와 달을 포함한 지구 10억 개의 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삼천대천세계가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라면 도대체 몇 개일까? – '무량무변한 시공간 속에서 만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세상 보듬는 따뜻한 손길



이토록 다정한 기술
변택주 지음
김영사/1만6800원

지구별 살림살이 힘쓰는 사람들
생태·평화·배려 가치 세계에 전해

10년 넘게 한 끼에 천 원만 받는 식당,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고속도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읽을 수 있는 문자까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으면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법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자를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은행, 오줌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화장실, 값을 매기지 않는 채소 가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한편으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생겨났다. 더불어 넘쳐나는 쓰레기와 지구를 가득 채운 온실가스로 멸종의 위기를 겪는 우리네 삶까지.

〈이토록 다정한 기술〉은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빚어낸 '살림 아이디어'와 '아우름 디자인' 90여 가지를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가 놓치거나 외면한 것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삶을 일구는 사람들. 이 책은 그들이 결 고운 마음으로 빚은 기술과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저자는 변택주 작가. 패션경영자로 일하며 경영에 관심을 가졌지만 일선에서 물러난 뒤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느껴 이를 알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불교계에선 오랫동안 법정 스님을 따른 제자로 잘 알려져 있다.

책은 사회에 첫걸음을 떼거나 일거리를 만들어 업을 처음 세우려는 이들에게 전하는 변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위해서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두가 지구별 살림살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 함께 길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책의 1부는 '이웃을 보듬고 살피는 아이디어' 10가지를 소개한다. 누구나 50분 아르바이트를 하면 '밥 한 끼' 먹을 권리를 주는 일본 도쿄에 있는 미래식당은 낯모르는 사람과 사이를 잇는다. 아르바이트를 한 뒤 굳이 끼니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받은 식권을 벽에 붙여두고 가는데, 땀 흘려 얻은 권리를 낯모르는 배곯는 이에게 내어주기도 한다.

2부 '지구를 살리는 살뜰한 노력'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KK플라스틱은 5년간 연구한 끝에 새로운 분자 구조를 지닌 비투멘을 찾아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스팔트로 탈바꿈시켰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반 수준. 인도 정부는 KK플라스틱이 개발한 비투멘으로 벵갈루루에 2000㎞가 넘는 도로를 냈다.

'더 느리게 더 슬기롭게 더 참되게'라는 주제의 3부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을 다룬다. 싱가포르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보듬는 '건널목 카드'는 보행신호의 시간을 더 늘려주는 신호등 연장 카드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처럼 여리고 힘이 달리는 이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호등에 붙어 있는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건널목 길이에 따라 보행시간이 짧게는 3초에서 길게는 13초까지 늘어난다.

변 작가는 책에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과 더불어 길을 냈고, 부처님도 천이백 아라한과 많은 이를 아울러 길을 냈다"면서 "몇몇이 함께 걸으며 낸 길을 모든 이가 더불어 거닐며 다질 수 있으니 함께 걷자"고 말한다. 윤호섭 기자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3~5/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오늘담마빠다한구절(법구경과함께하는365일마음일력)	일아/김경연	불광출판사	6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가시를거두세요:소나무스님의숭늉처럼속편한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7	만화로보는불교명상길라잡이(대원불교문화총서2)	방경일 글,정기영 그림	운주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대방광불화엄경강설49(36,보현행품)	여천 무비	담앤북스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숫타니파타(빠알리대장경/쿳다까니까야)양장본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지은경 지음	레시피팩토리	10	반야심경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책세상

茶 통해 선·교 융합 선사상 정립하다



초의선사의 다도연구
박동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8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838년 김정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차의 완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초의 다도 사상' 의문 풀어낸 최신 연구 성과
〈일지암서책목록〉 통해 초의 교유 관계 조명도

조선 후기,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던 우리 차 문화를 되살린 초의선사. 하지만 초의가 되살려놓은 다법(茶法)은 조선의 국운 쇠락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재난의 연속으로 크게 꽃피우지 못했다. 다행히도 그 맥은 끊기지 않고 초의의 제자들에게 전해져 실낱처럼 명맥을 유지해왔다. 근대에 이르러 초의의 다풍(茶風)은 응송 스님에게 이어졌고, 응송 스님은 1985년, 이 책의 저자인 박동춘 박사에게 〈다도전수게(茶道傳受偈)〉를 내려 초의의 다도 계승자임을 인정했다.

저자는 이 인연으로 초의 연구에 매진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학을 깊게 공부한 덕에 초의와 그와 교류했던 경화사족(京華士族)이 남긴 한문 문헌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초의선사의 다도 연구를 주제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초의학(草衣學)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 초의의 다도법 연구에 천착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초의와 초의차의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이 책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다. 기존 연구 성과는 물론 최근 발견된 초의선사의 새로운 자료를 모두 모은 이 연구서는 '초의 사상'의 의문을 풀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우리나라에 차가 소개된 시기는 대략 6세기 말에서 7세기 무렵으로 추정한다. 특히 당(唐)을 왕래한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차를 유입했다. 10세기 말경에 이르면 외래문화인 차 문화가 고려인의 기호와 풍토를 함의한 우리 차 문화로 발전하였다.

고려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차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인데, 왕실 귀족과 승려들이 차를 향유하며 다사(茶事)를 주도하였다. 문예적 안목이 높았던 고려의 음다층은 세련되고 예술적인 고려만의 차 문화를 완성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차 문화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의 지배층은 차가 불교문화를 상징한다는 인식으로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는 극소수의 수행승들 사이에서나 그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 초의선사의 등장으로 일변하기 시작했다. 초의는 차의 이론을 정립하고 선대의 제다법을 복원하여 초의차를 완성하였다. 당시 중국차만을 알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초의는 자신이 만든 초의차를 통해 조선 후기 유학자들과 교유하며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끌어내어 조선 후기 차 문화 중흥을 도모했다.

이 책은 이러한 초의의 생애, 수행, 저술을 심도 깊이 연구하고, 조선 후기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상세히 파헤쳤다. 또한 초의가 정립한 제다법, 탕법, 장다법을 통해 그만의 다도 사상을 살폈다.

초의가 당시 한양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경화사족(京華士族)들과 교유하며 음다 기층을 확보해 간 과정을 보여주고, 끽다거(喫茶去)의 선다전통을 이은 초의차가 누구에게로 계승되었는지 규명하여 초의차 계보를 알게 한다.

〈동다송〉, 〈다신전〉, 〈일지암시고〉 등과 초의에게 보낸 유학자들의 간찰, 초의와 교유했던 인사들의 문집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저자가 발굴해낸 초의선사의 유품 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을 통해, 초의의 구체적인 다도 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근래에 발견한 초의와 추사 김정희의 새로운 자료를 비롯하여,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의 새로운 자료도 이 책에 담았다. 초의 관련 최신 연구 자료를 담아 집대성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초의는 조선 후기 사라질 위기에 있던 사원차를 복원하여 초의차를 완성하였다. 또한 실학에 눈뜬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애호층을 확산했다. 초의와 경화사족의 교류는 초의가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당시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그를 전다박사(煎茶博士)라 칭하였는데, 이는 초의를 차 전문가라고 인정한 것이다.

초의는 선·교 융합의 수행체계를 토대로 그의 선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는 휴정 이후 대둔사에 전해진 수행 체계를 계승한 연담, 완호 등에게 영향받은 것이다. 아울러 그의 사상에 스며든 유학사상은 정약용, 김정희 등 성리학에 밝았던 인물과의 교유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초의는 정약용에게 시학과 학문 방법, 유가 사상 및 역사관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수행승이었던 초의가 유학, 시학, 문예 예술에 깊이 천착했다는 점은 그의 장서 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에 상당량의 유가서(儒家書), 당송 대의 시문 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초의 다도는 대둔사 다풍으로 정착되어,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범해는 초의 다도를 이은 다승(茶僧)으로 여러 편의 다시를 남겼고, 이어 송광사에서 수행했던 그의 제자 금명에게 이어졌다. 그러나 금명의 뒤를 이은 제자는 근현대 불교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맥을 이어가지 못했다. 반면에 범해의 제자인 대둔사 원응으로 이어진 초의 다풍은 응송으로 이어져 박동춘에게 전승되었다.

▲박동춘 작가는?

초의선사의 다맥(茶脈)을 이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게(茶道傳偈)〉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저자가 조선 후기 초의선사에 의해 정립된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받았다는 증거이다.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무공(無空)이라는 법호를 받았으며,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사단법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어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전수하고 있다.

불교명상을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이해하는 불교명상 입문서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
글 방경일, 그림 정기영
운주사 / 2만 원

명상은 이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르침 내지 실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즉, 종교적 실천을 넘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안정과 치유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는 불교명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불교명상 입문서다. 불교명상의 역사와 개념, 종류와 원리, 명상 수행법과 구체적 실천방법, 그리고 그 효과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있어서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만화와 글을 적절하게 배치해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만화 부분은 만화로서의 특색을 살려 재미있게 각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되 더 깊은 내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글 부분은 각 주제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담아내고 실천으로 이끌어준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불교명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혼자서 직접 실천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명상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격해 현대에도 유효하다니 그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명상은 현대인들이 겪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유효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에도, 집중력 향상에도, 마음의 안정에도, 건강증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는 불교명상의 대표적 분야인 위빠사나 명상과 참선 명상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명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방경일 작가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불교 관련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중이다. 유튜브 채널 〈해오름〉 〈단경〉 〈도론도담〉의 '차 한잔의 도론도담'에 출연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 '초기불교 vs 선불교' '33관세음보살 이야기'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 등이 있다.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들

"저자에게 단 한 문장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써 줘서 고마워요." (프랑스 아마존 독자평)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 안혜린 옮김 | 272쪽 | 19,000원

내가 여기 있어요

마음챙김 심리 치료의 선구자

출간 즉시 프랑스 아마존 1위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대할 때 위로는 결코
고통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견딜 만하게 해주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지 않게끔 한다.
슬퍼하는 이에게 "울지 마"가 아니라
"울어, 눈물을 다 쏟아내, 내가 여기 네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책 속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신의학자이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추앙받는,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선사하는
기적 같은 위로의 힘!

더이상 기댈 곳도 버틸 힘도 없는
나와 당신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의 메시지!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다른 이를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며 말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⑰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요약
붓다는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을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치고 있었다.

붓다 가르침은 '대기설법'

〈對機說法〉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그대 방금 수행이라 하셨소?

-그렇습니다.

-하하하 우습구려. 어떻게 해서 그대 교단의 무리는 하나같이 수행인이라 자처하는 게요. 그대들의 교단이 무슨 신앙단체라도 되는 게요? 아니지 않소? 그대들의 공부라는 것이 우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고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지 않은가.

-말을 삼가시오. 어찌 수행하지 않고 우주의 이치를 깨칠 수 있겠는가.

-하하하 그래서 그대들은 수행하는 자들이다? 허나 붓다라고 하는 자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그는 사기꾼이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신의 흉내를 내려 하고 있단 말이오. 그런 그가 교단을 세워 가난한 이웃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니 어찌 말세가 아니겠소.

-더 이상 내 스승을 욕되게 한다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가 머리를 내저었다.

-그리고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은가?

-무슨 소리요?

-그대의 아내가 있는 곳이 아니냐는 말이오? 사랑하는 아내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미 그 소문을 모르는 이 없는데 어찌 여기서 서성거린단 말이오?

난타는 눈을 치뜨고 소리쳤다.

-한량없는 청정행을 닦아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출가한 사문을 능멸하다니!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외다. 하지만 진정한 대승이 무엇이겠소. 진정한 대승은 범부와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오. 그대 혼자 해탈에 든다면 그건 소승이지 대승은 아닐 것이외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뒤로하고 홀로 자신만의 깨침을 위해 독각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도가 아니라는 말이외다. 대승이란 중생과 아픔을 같이하는 것이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래서 나더러 아내에게 돌아가 세속의 복락을 누리란 말인가?

-진정한 대승은 진흙 바닥에 발을 묻고도 정신은 수미산 상봉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시오. 분명한 것은 세속의 생활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출가승의 즐거움도 인정해야 하고 세속의 삶도 인정해야 하오. 중요한 것은 오로지 마음의 출가이기 때문이오. 왜 그대는 몸의 출가만 보고 있소. 그것이 그대의 함정이오. 몸의 출가와 마음의 출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몸의 출가인데 아직도 세속의 미련이 남아 있다면 어찌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겠소. 오히려 불법을 망칠 자는 그런 자들이요. 거룩한 출가는 몸과 마음이 하나인 곳에 있는 것이오.

그 길로 정사로 돌아온 난타는 울었다. 벌써 손타라를 떠나 온 지가 언제였던가. 이제 수행심으로 그녀를 잊을 만한데 무슨 소린가. 그의 말대로 대체 붓다의 자비가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괴롭다면 손타라도 그만큼 괴로웠을 것이다. 너와 나, 나와 너라는 차별이 없었다면 이런 난관이 있을 리 없다. 이제 승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남자 여자라는 차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붓다의 경지에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숙제 중의 숙제일 것이다.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다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편견은 남아 있기 마련이고 보면 여성 천시의 이유를 들라면 수행승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다.

-여자는 비구들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러나 출가승에게는 말이 된다. 이것이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수행 길에 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수행승도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본능적인 색욕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붓다는 고심 끝에 오감을 자극하는 매운 채소 다섯 종, 즉 오훈(五葷)마저도 먹지 못하게 했다. 일정한 경지에 가 있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은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출가의 문제 또한 그랬다. 일정한 수준에 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속은 거대한 수도장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언제나 말하고 있다.

-큰불이 사람을 태운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까이할 것이다. 맑은 청풍이 형체가 없어도 이것 또한 잡을 것이다. 뱀이 독을 품고 있지만 오히려 만질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은 그 실상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붓다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래서 난타는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

-붓다시여, 여인 보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보지 말아라. 설혹 보더라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함께 이야기하더라도 일심으로 법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붓다시여, 여자는 결코 상대해선 안 될 마구니이며 남자에 비해 월등히 저열한 동물이라는 말인데 그럼 붓다의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오해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잘못 알아들으면 차별에 의한 것이 되겠지만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방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비하하는 작태를 나무라는 것이다. 남자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 여자는 자연 뒷전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나 교양이나 지위 면에 뒤떨어지게 되었고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에 자연히 분별이 옅고 마음이 편벽되어 발심을 좀처럼 내기 어렵다. 나는 이것을 여성들에게 반성하라 촉구하는 것이다. 아난이 여자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도 내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출가하는 여자들에게 계율을 약속받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예를 하나 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붓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아나빈저 장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은 착하고 아름다웠다. 이웃 나라에 있는 망재장자라는 사람이 그의 딸을 보고는 며느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나라에는 이상한 법이 있었다. 누구든 다른 나라 여자에게는 장가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법이었다. 만약 법을 어기고 장가를 든다면 그 대가로 육천 명의 바라문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했다. 육천 명의 바라문에게 잔치를 베풀려면 엄청난 재산이 있어야 한다. 망재장자는 며느리가 될 처자가 마음에 무척 들었으므로 그것을 무릅쓰고 결혼시켰다.

결혼식 날 바라문들이 예의도 없이 옷을 벗고 모여들었다. 놀란 며느리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장자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타일렀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붓다께서 참괴(慚愧)가 없는 사람은 혈육을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 바라문들은 참괴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들에게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신부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던 바라문들은 신부의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모두가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되자 장자는 걱정이 되었다. 바라문들은 하나같이 세력가들이었음으로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한 바라문이 그를 찾아왔다. 장자는 그에게 하소연하였다. 바라문은 그런 그에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붓다의 얘기를 꺼냈는데 장자는 그에 대해 얘기하던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서 그 장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 며느리도 그분 얘기를 자주 하던데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문은 그에 대해 얘기해 준 다음 며느리 더러 그분을 모시게 한다면 일이 해결되리라 하였다.

바라문의 말은 맞았다. 며느리가 붓다를 모셨다는 말을 듣자 붓다의 큰 위력을 알고 있던 바라문들은 모두가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때 붓다는 그에게 일렀다.

-한 여자의 신심이 가정과 일국에 영향을 미쳤다. 여자라고 하여 가벼이 여긴다면 결코 사문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법에 있어 붓다는 평등했고 그 이후로 여인을 천대하는 일은 없었다. 수행승의 잣대는 그 여인이 가졌던 신심 그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붓다는 대승의 입장에 언제나 서 있었고 소승의 입장으로는 그 경지를 넘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펴고 있었다.

-붓다시여. 스승님의 사랑이 그렇게 현실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난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붓다는 더 듣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 거사의 질타는 대승의 핵심을 말하고 있음이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혹의 덩어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버리는데 보살의 참뜻이 있다고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복덕을 쌓기보다는 지옥으로 가 큰 대비심으로 지옥을 천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녀와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독각이 아니라 대승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붓다시여.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지요?

난타의 물음에 붓다는 온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모두 가르쳤느니라.

나중에야 알았다. 붓다가 대승을 가르쳤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날 사리풋드라가 이렇게 말했다.

-붓다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붓다의 가르침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이기 때문이다.

-대기설법?

-그렇다. 중생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펴고 있었다는 말이다. 대승은 분명히 큰 세계이나 소승을 거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생각해 보아라. 여기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다. 대승은 큰 그릇이요. 소승은 작은 그릇이다. 큰 그릇의 음식은 작은 그릇에 쏟아부을 수는 없다. 흘러넘칠 테니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릇 전체를 더럽히고 바닥까지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대승 사상은, 수행을 더 닦아야 할 수행승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너에게 비말라처럼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안으라고 가르쳐 보아라. 너는 그대로 진리의 세계를 버리고 가 버렸을 것이다. 붓다는 아직 대승을 안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에 손타라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다. 붓다는 그렇게 대승과 소승 모두를 가르치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섭구나. 대승 사상이 무섭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기합리화였다. 손타라를 향한 그리움. 손타라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이 대승의 경지겠느냐는 생각. 그 생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가 버리자. 대승이 별것인가.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대승이다. 그래서인지 잠이 들면 꿈속으로 손타라가 찾아들었다. 그것을 안 붓다는 어느 날 난타를 찾았다.

-너는 향취산에 가본 적이 있느냐?

붓다가 물었다. 〈계속〉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군산 연등축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산 불자 사부대중이 다음과 같이 연등축제를 엽니다. 군산 불교에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과 시민들 그리고 귀하를 이 행사에 초대합니다. 군산 불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일 시 : 5월 14일 오후 6시30분

장 소 : 군산 수송체육공원

주요행사 : 식전공연, 법요식, 제등행진, 산회

부처님오신날 군산시 봉축위원회
위원장 도연
사부대중 합장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7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계묘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제주지사	김용덕		H 010-3697-2441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⑨ 관욕 (下)



▶한줄요약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중생 위한 가피 기원하듯, 부처님 관욕이 곧 중생의 청정을 위한 발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처님 관욕, '중생 청정' 위한 발원

영가를 위한 통과의례

천도재에서 영가의 관욕은 통과의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관욕으로 업과 번뇌를 씻은 뒤, 부처님 앞에 나아가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욕의 절차는 영가가 생전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삼업(三業)을 정화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의미로 진행된다. 따라서 비밀스럽고 신묘한 성격을 지녀, 병풍을 치거나 가설공간으로 관욕단을 마련하여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관욕의 절차는 병풍 안팎에서 이원적으로 전개된다. 병풍 바깥에서는 법주 스님이 세부 절차에 따라 진언을 염송한다. 업의 정화과정을 몸 · 입 · 얼굴 등을 씻는 것에 비유하여 목욕진언 · 작양지진언(嚼楊枝眞言) · 수구진언(漱口眞言) · 세수면진언(洗手面眞言)을 읊고, 이어 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차례로 이어간다. '작양지'란 '버드나무 가지를 씹는다'라는 뜻으로, 버드나무 가지가 이를 닦기 위해 지참하는 '비구 18물'의 하나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병풍 안에서는 또 다른 스님이 법주 스님의 진언에 따라 일련의 행위를 이어간다. 관욕단의 모습을 살펴보면 향탕수를 담은 대야, 비누 · 수건 · 칫솔 · 치약 등의 세면도구, 영가를 구상화한 지의(紙衣), 한 벌의 새 옷 등을 갖추어놓는다. 영가를 목욕시킨 뒤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의미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의를 향탕수에 살짝 적셨다가 태움으로써 업과 번뇌의 씻음을 상징하게 된다.

이때 개인의 사십구재에서도 지의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갖추고, '남신구(男身軀) · 여신구(女身軀)'라 써둔다. 지의가 두 개인 것은 영가를 포함한 범부 · 범녀를 상징하여, 천도되지 못한 채 떠도는 모든 고혼을 함께 구제의 대상으로 삼아 관욕을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처럼 관욕은 영가의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관욕으로 청정해진 영가는 비로소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본격적인 가르침과 가피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욕을 치르기 전의 영가가 속(俗)의 존재였다면, 관욕을 치른 뒤에는 성(聖)의 존재로서 종교적 경지가 변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때 영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옷'이 등장한다. 법주 스님이 염송하는 의식문에는, 영가가 이전에 입었던 명부세계의 옷(冥衣)을 벗고 해탈복(解脫服)으로 갈아입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명의'와 '해탈복'이라는 두 가지 관념적 옷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울러 영가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지의를 두는 것처럼, 목욕 후에 갈아입는 옷 또한 가시적인 새 옷으로 한복을 마련해놓는다. 이 옷은 봉송(奉送) 단계에서 위패와 함께 불태우게 된다. 관욕 때 지의를 태우는 것은 명의(冥衣)가 해탈복으로 변환됨을 나타내고, 봉송 때 한복을 태우는 것은 영가가 저승으로 통합되었음을 뜻하는 셈이다.



삼화사 수륙재에서 상단 관욕을 위해 불패를 모시고 성욕소로 향하는 모습.

특히 명부 옷이 새 옷으로 변했음을 알리는 '가지화의(加持化衣)' 편은, 한국불교의 의식문에만 등장하는 절차이다. 중국에서는 업을 씻고 해탈복을 갖추는 것으로 간략하게 다루었으나, 옷이 바뀌는 '화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의미화했음을 알 수 있다.

성현을 대상으로 한 관욕

사십구재처럼 소규모의 개인 천도재와 달리, 수륙재 · 생전예수재 등에서는 하단관욕뿐만 아니라 상단 · 중단 관욕도 이루어진다. 성현은 본래 청정한 존재인데 왜 관욕을 하는 것일까? 속(俗)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 관욕이 업과 번뇌를 씻어주기 위함이라면, 성(聖)의 존재를 향한 관욕은 경배와 찬탄의 뜻을 지녔다. 부처님의 경지는 일체 상(相)을 떠났으나 방편으로 상을 두듯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도량에 강림한 부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단과 중단 또한 관욕의 의미를 구분하여 위상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의식문을 보면, 상단관욕 '입실게(入室偈)'에 "룸비니동산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금색 묘신으로 추함이 없었으나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냇가로 가셨으니, 이제 관불(灌佛)로써 중생을 구제함이 또한 마땅하리라" 하였다.

상단관욕이 중생에게 불보살의 존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면, 중단관욕의 목적은 이와 다르다. 수륙재 의식문의 중단관욕 '가지조욕' 편에, "…향기로운 물 준비했으니 신통력으로 밝게 비추시어 정성을 갸륵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오염된 때를 벗겨 청량한 심신으로 번뇌를 없애소서"라 하였다. 신중은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어디까지나 삼보에 귀의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이기에, 중단관욕은 명부 성중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근심을 위로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불교서 관욕은 모든 존재 열려있어
물로써 정화한다는 보편성서 출발
행하는 이의 심신 정화 공덕이 커
관욕이 지닌 본래 의미 회복 기대



진관사 수륙재에서 관욕단에 영가 위패를 모시고 하단 관욕을 하는 모습.

참고로 하단의 '가지조욕' 편을 보면, "지난 겁 동안 쌓인 티끌과 번뇌를 씻어내고, 여러 생 동안 지은 죄의 때를 제거해 뜨거운 번뇌도 육신의 혼침도 털어 없애소서"라 하여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업을 씻어내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정화'라는 보편적 의미를 공유하는 가운데, 대상의 위상에 따라 관욕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재나 수륙재를 행할 때 상단과 중단의 관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진관사에서는 수륙재에서 상단 · 중단 관욕을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단과 중단의 불보살을 비롯한 성중은 관욕이 특별히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권공절차를 통해 본래의 수륙재 목적에 더 부합하려고 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는 관욕을 하지 않는 데 대한 합당한 설명이라 하겠다.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상단 · 중단 관욕에 대해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킴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근래 대부분 사찰에서 사용하는 예수재 의식집은 〈예수재의범〉으로, 1970년대 화응(和應) 스님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정리한 책이다. 이 의식집을 1980년대 삼우(三愚) 스님이 재편집할 당시, 일부 스님들이 "어떻게 중생이 감히 부처님을 목욕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식은 생략함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15 · 16세기에 처음 편찬되었던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를 재편한 〈석문의범〉, 1970년대의 〈예수재의범〉에 들어있던 상단 · 중단 관욕이 삭제된 것은 1980년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어산 스님들이 불경함을 주장하여 생략한 것이자, 의례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절차에 포함되었던 셈이다.

'중생의 정화'로 되돌아와

불교에서 관욕이란 모든 존재에게 열려있는 것이며, 그 의미 또한 물로써 정화한다는 보편성에서 출발한다. 관념적 관욕은 물론, 조성된 상이든 살아있는 존재이든 무관할뿐더러, 상단의 불보살에서부터 중단의 신중과 하단의 영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상에 맞게 행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의식으로서 관욕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오인스님은 〈현유경〉 · 〈마하승기율〉 등에서 성도절(成道節)에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목욕 공양을 올린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수행자들은 야외의 숲과 나무 아래서 수행 정진하여 냉기와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땔감을 마련해 물을 데워 올리는 공양 또한 큰 공덕을 지닌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욕승(浴僧) 공양이 후대로 오면서 초파일의 욕불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상 · 신상은 물론, 산 자를 대상으로 한 씻김의 의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수계법회에서 스님이 업장 소멸과 성불을 축원하며 신도들의 머리에 청수로 마정수기(摩頂授記)를 행하기도 하나, 이는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이에 비해 죽음의례에서 행하는 관념적 · 밀교적 성격의 씻김의례가 발달해있다. 관념적 관욕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하단의 존재에 국한됨을 살펴보았다. 앞서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킬 수 없다'는 생각은, 인근 불교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욕이나 부처님오신날의 관욕과 모순된다. 이러한 관념이 싹튼 것은 역사적으로 천도재에서 상단 · 중단 관욕을 그만큼 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사십구재는 물론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천도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때의 관욕은 생전에 지은 망자의 업을 씻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욕=영가관욕'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상단 · 중단 관욕은 사례도 드물뿐더러 그 의미 또한 영가 관욕에 구속되어 '중생이 감히 부처님의 관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셈이다.

제가 이제 모든 부처님을 씻겨드리고
바른 지혜로 공덕이 가득한 부처님을 장엄하오니
오탁(五濁)에 빠진 중생들이 오염된 생각을 여의고
부처님처럼 청정한 법신을 증득케 하소서

욕불을 할 때 발원하는 '욕불게(浴佛偈)'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중생을 위한 가피를 기원하듯, 부처님의 관욕이 곧 중생의 청정을 위한 발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중단 · 하단 관욕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관욕은 씻어줌으로써 대상에게 공덕을 베푸는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욕불게〉처럼 행하는 이의 심신을 정화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가 관욕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관욕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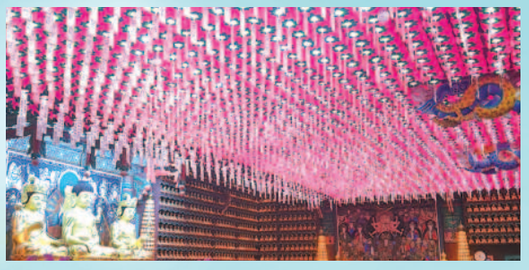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⑨ 깨달음의 본체–여의주와 빛 (1)



▶한줄요약
완전무결한 득도의 표현, '궁극의 깨달음'은 불화 속에서 '여의주'로 묘사된다.

불화 속 깨달음, '여의주'로 묘사

'궁극의 깨달음' 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불교 미술과 불교 경전은 모두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미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형(그림이나 조각)으로, 경전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또는 언어)로 그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불교 그림의 시원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 그려진, 아잔타(기원전 1세기에서 7세기까지 불교 예술로 장엄된 인도 석굴)의 벽화로 잘 알려져 있다. 직관적 전달력에 있어 미술은 문자를 앞서기도 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시각적 조형물로 표현하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강력한 방편(方便)이었다. 종교적 도상(圖像)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도상은 무엇일까? '궁극의 깨달음' 또는 '근원적 신성성' 을 나타내는 표상은 무엇일까?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진리 그 자체' 는 근본불로 설정되는 '법신(法身)' 으로 규정된다. 그러면 근원적인 깨달음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표현되는지, 작품과 문헌을 통해 그 내용을 보도록 하자.



사진 왼쪽부터 그림③→②→① 순이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상괘불〉 부분. 궁극의 깨달음은 '여의주' 로 표현된다. 1808년, 비단에 채색, 전체크기 1,006x737cm.

부처님 상호 핵심적 특징

부처님을 부처님이게 하는 요소는 우선 부처님의 얼굴과 머리 모양에 있다. 우리는 부처님 미간의 백호와 동글동글 말린 나발, 그리고 윗머리에 둥글게 올라온 육계를 보고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부처님의 형상임을 안다. 육계에 있는 여의주를 육계 보주라고 부른다. 우리가 백호 · 나발 · 육계 · 육계 보주라고 예사로이 이름 붙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비로소 핵심이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나열한 요소들(백호 · 나발 · 육계 · 육계 보주)의 공통적 특징은 '둥글다' 이다. 미간 사이 둥근 원(속칭, 백호) 속에는 소용돌이의 나선이 돌아가고 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표현인 동글동글 나발도 소라 모양의 나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발 가운데에는 큰 반원의 보주가 보이고, 다시 그 위의 정점에는 동그란 보주가 있다. 어느 것이건 모두 '둥글다' 라는 특징에, 또 하나의 공통적 특징을 더하자면 (그 속에서 에너지가) '회전한다'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둥근 모양' 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본체(법신)이고, 그 속에서 회전하는 에너지는 깨달음의 작용(보신)이다. 우리는 눈 · 코 · 입의 사람 형상(응신)에 익숙하기에 그것을 위주로 부처님을 본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깨달음의 모습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 '둥근 모양' 은 청정한 마음(또는 순수 의식, 우주 의식)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소용돌이 치는 '서기(瑞氣, 신성한 기운)' 는 장엄 에너지의 일어남과 그것의 변화(연기와 무상)를 나타낸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계연기(法界緣起)' 라고 한다. '청정한 마음' 은 법계이고, '서기' 는 그것을 바탕으로 장엄 에너지가 연기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을 또 다른 말로 '여래성연기(如來性緣起)' , 줄여서 '성기(性起)' 라고도 한다. '여래장을 바탕으로 여래의 성품이 일어난다' 라는 뜻이다.

무엇이 主이고, 무엇이 副인가

부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응신의 형상을 기준으로, "얼굴의 미간에 백호가 있다" 또는 "머리에서 육계가 올라온다 또는 보주가 나온다" 등으로 그 모습이 말해진다. 즉, 사람이 본체가 되고 거기에서 백호나 여의주가 부차적으로 장식되거나 덧붙여진 형태로 설명된다. 하지만, 사람의 형상(응신) 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단위가 여의주(법신)이다. 작고 거친 단위(무명의 세계)로 그것보다 크고 미세한 단위(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언어나 형상으로 법신을 표현할 수 없다('법신비상분' 中)라고 〈금강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법신에서 보신이 나오고, 보신에서 응신이 나오는 '법신→보신→응신' 의 구조이다. 그러므로 여의주의 바탕(법신)에 사람 형상의 응신이 삼신귀일(三身歸一)의 원리로, 하나로 '계합'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계합이란 '하나가 되다' 또는 '융해되다' 의 의미로 보면 되겠다.

즉, 여의주(법신)와 사람 형상(응신)을 중첩되게 그림으로써 '깨달음과 계합' 된 경지를 나타내었다 하겠다. 이렇게 '하나 된 모습' 을 물아일체(物我一體) 또는 범아일여(梵我一如)라고도 한다.

불교미술, 조형으로 깨달음 경지 표현
원형 · 회전, 도상 內 공통적인 묘사들
'원'은 그 자체로 깨달음의 본체 '법신'
'회전 에너지' 깨달음의 작용인 '보신'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상, 근원적 진리의 모습은 여의주로 묘사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여의주가 있고, 이러한 무수한 여의주의 바탕에는 대왕 여의주가 있다. 대왕 여의주를 마니보주라고 한다.

"이 신령한 구슬(靈珠), 영롱하기 그지 없네/ 본체는 하천과 모래사장 두루 있지만 안팎은 비었네/ 사람마다 부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 가며 희롱해도 다함이 없네/ 혹은 마니(摩尼)라하고 혹은 영주(靈珠)라 하네/ 이름과 모양 비록 많지만 본체는 같네"
(나옹화상, '완주가(玩珠歌)'中)

개체가 개체의식(에고)에서 벗어나 바탕의식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나와 세상의 실체(실상)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가(보름달이 있는 줄도 모르고) 냄새만 쫓아 땅바닥만 킁킁댄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무명의 상태→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본다(자각의 순간)→ 보름달이 되어 이제는 스스로(개)를 내려다 본다.(개체의식에서 벗어나 바탕의식과의 합일한 상태) 관점의 변화를 통해 드디어 전도몽상(顚倒夢想)이 바로잡힌 것이다. 전도몽상이란, 무명 때문에 뒤바뀌고 거꾸로 된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내가 있다' 고 착각(我相)하는 한, 우리는 전도몽상의 상태인 것이다.

제6차크라와 제7차크라

사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조선시대의 부처님 표현(불화와 불상)에서 '궁극의 깨달음의 도상' 을 살펴보자. 부처님 머리의 여의주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그림①) 얼굴 위로는 큰 반원 형태의 여의주가 보여, '얼굴과 여의주가 중첩돼 있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계합, 하나가 되었다' 는 표현이다. 이러한 상태를 '제6차크라(아즈나차크라, AjnaChakra)와 합체되었다' 라고도 말한다. '미간 차크라' 라고도 불리는 이것과 합체가 되면 '물질을 투과해서 보는 능력' 이 생기는데, 이것을 통찰지(또는 반야지혜)라고 한다. 타 종교에서는 '제3의 눈' 이 열렸다고도 표현한다. 이 차크라는 갖가지 정신집중 상태를 지배한다. 이러한 합일의 상태에서는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켜 온 우주에 번지게 한다. 수행자들은 아즈나차크라를 통해 '신성성을 자각' 하는 두 번째 탄생을 하게 된다.

얼굴 위로 보이는 반원의 여의주를 (학계에서는) 중간 계주라고 하고, 그 위 또 하나의 여의주를 정상 계주라고 한다. 정리하면, 중간 계주는 제6차크라와 계합한 모습이고, 정상 계주는 제7차크라와 계합한 모습이다. 중간 계주의 한 가운데에 백호가 있다. 백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것 역시 그 실체는 여의주이다. 백호의 여의주는 중첩된 여의주(제6차크라)의 중심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정상 계주에 해당하는 제7차크라(사하스라라, Sahasrara)는 무엇인가? 사하스라라는 '영광 · 승리 · 완성' 등의 의미로 '깨달음의 성취 또는 완성' 을 말한다. 우주 또는 영적 세계와의 완전한 합일을 상징한다. 백회 자리에 위치하기에 '백회 차크라' 라고도 불린다. 이것과 합일했다는 것은 몸과 연결된 총 7개의 차크라와 전적으로 완전하게 합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 온 누리에 신성한 에너지를 방사한다.

소위 '성자(聖者)' 로 일컬어지는 반열에 들어간다. 완전무결한 득도의 표현! 이상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 은 '여의주' 로 묘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스스로 발하는 깨달음의 빛' 은 성자들의 머리 주위의 빛(후광 또는 원광)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불교미술에서는 '광배' 로 그려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 해설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이안의 Media In Buddha ⑮ 영화 〈자전거를 탄 소년〉



▶한줄요약
진짜 어른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쓰러진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자신이 가야할 곳에 자전거를 기대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 아이에게는 바로 전륜성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당신이 '진짜 어른' 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컬어 법륜(法輪)이라고 한다. 불법의 바퀴라는 이 말은 부처의 가르침으로 세계를 교화하는 전륜성왕의 바퀴에 비유한 말이다. 전륜성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대왕이라고도 한다. 바퀴라니, 왜? 말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왕이니까.

인도 신화에서 종교적 이상과 정치적 이념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제왕이 전륜성왕이다. 그래서 불교만이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도 전륜성왕을 기린다.

전륜성왕은 일곱 가지의 보배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금, 은, 구리, 철의 네 가지 바퀴가 바로 일곱 보배 가운데 하나다. 왕이 다른 곳으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바퀴가 앞서 다니면서 땅을 평탄하게 하고 여러 민족을 법에 따르도록 한다고 하니 새로운 왕의 전위 역할을 하는 보배인 것이다.

바퀴는 인간이 문명을 일구고 전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바퀴는 물자나 사람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바퀴가 구르려면 고르고 넓은 길을 닦아야했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아닌 길 닦는 일에 사람들을 부리려면 강력한 통치자가 이끄는 권력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륜성왕의 바퀴는 비유적 의미로 통치는 무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정법이라는 바른 뜻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다고 하는 이상적인 통치를 일컫는 상징인 것이다. 바른 법에 어긋나는 자는 전륜성왕의 상징인 수레바퀴가 끝까지 쫓아 바른 법으로 이끌게 만들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니 바퀴를 선물한다는 것은 법을 선물한다는 것이고, 길로 나아갈 수단을 선물한다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선물한다는 것과도 같다. 어린 시절 가장 큰 선물은 자전거다. 자전거는 아이가 부모에게 받게 되는 가장 재미있으면서 편리하고 값비싼 선물일 것이다. 부모가 자전거를 준다는 것은 혼자 바퀴를 굴릴 만큼 컸다는 인정과도 같고, 비싼 선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증표와도 같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를 사준 아버지가 사라지고, 자전거도 감쪽같이 사라진다면? 아이는 왕이, 법이, 세상이 사라진 것과도 같은 혼란과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자전거를 탄 소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아이에 대한 영화다.

한때 한국영화계가 상을 받는 것은 꿈도 못꾸고 그저 비경쟁부문이라도 초청되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자랑삼던 '영화제 중의 영화제'가 칸 영화제다. 이창동 감독이 〈밀양〉으로 감독상이나 작품상이 아니라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쾌거'가 되고, 그래서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다른 영화의 평가를 맡기면서도 정작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각본상을 주는 정도로 대접하는 까탈스러운 영화제인데도 전세계 영화계는 다른 어떤 영화제보다 칸에서 인정받는 걸 최고의 칭찬으로 여긴다.



영화 〈자전거를 탄 소년〉 한 장면.

그 칸 영화제에서 네 번째 장편 극영화 〈로제타〉(1999년)로 일단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은 다음부터 모든 작품이 만드는 족족 칸 수상작이 된 대단한 감독들이 있다. 늘 둘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형제 감독 다르덴 형제. 벨기에 출신인 형 장 피에르 다르덴과 동생 뤽 다르덴은 시나리오, 연출, 제작을 함께 하는 형제 감독으로 수십편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호흡을 맞추다가, 1987년 첫 장편극영화 〈거짓〉을 연출했다.

〈아들〉(2002년)은 제55회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더 차일드〉(2005년)로 남들은 평생 한번도 받기 어려운 황금종려상을 또 받았으며, 〈로나의 침묵〉(2008년)으로는 각본상을, 그리고 2011년에는 〈자전거 탄 소년〉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다르덴 형제는 콧대 높은 칸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의 자리에 있다.

1970~1980년대 유럽 노동자의 팍팍한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다르덴 형제는 장편 영화에서도 동시대 사회 현실이 평범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우는 그늘을 영화에 담는다. 1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스크린 앞에 잡아두기 위해 대부분의 장편 극영화는 복잡한 플롯, 관객의 허를 찌르는 반전,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독특한 캐릭터 등을 최대한의 영화적 기교로 짜맞춘다.

그런데 다르덴 형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극영화를 만든다. 등장인물에 대한 동일시를 만들어

> **다르덴 형제 감독한 〈자전거를 탄 소년〉**
> **자전거 팔고 자신 버린 아버지 기다리는**
> **주인공 시릴을 객관적 시선에서 조명해**
> **아이 성장 기다려주는 사만다, '참 어른'**

내는 현란한 카메라 조작으로 현실을 잊게 만드는 대신 핸드헬드 카메라로 영화 속 공간에 파고들되, 그 카메라는 비전문배우들이 연기하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연기를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만 한다.

섣불리 렌즈의 시선에 감정을 실어 영화 속 인물에게 이입하는 대신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상황과 사건이 인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관객이 납득하고 공감할 때까지 감독의 시선은 집요하게 한 발 물러서있다. 카메라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거리에서 한 신을 하나의 컷에 담아낼 뿐, 등장인물의 감정을 싣는 시점샷이나 인물들 각자의 행동과 대응을 주관적으로 만드는 반응샷으로 극적 긴장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관객은 영화 속 상황을 온전히 객관적인 사건으로 지켜보여야 하며, 그 상황이 극적으로 고안된 허구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루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니라 숨 막히게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다.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의 틈새가 벌어진 순간 그 안에 들끓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치게 될 때 겪게 되는 가엾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뭐라 감히 탓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이 카메라의 시선을 따라 관객의 가슴에 묵직하게 들어차도록 만든다.

〈자전거 탄 소년〉도 마찬가지다. 주인공 시릴(토마 도레)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영화 속 인물들이고, 관객이고 간에 죄다 불편하게 만든다. 어쩌면 아이가 저토록 밉상일까 싶게 막무가내로 자신이 바라는 것만 집요하게 요구할 뿐, 그런 집착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얼마나 난처하게 만드는 지는 전혀 돌아보지도 마음에 담지도 않는다.

시릴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자신의 자전거를 되찾는 것이다. 그 자전거는 한 달 후에 데리러 오겠다며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아버지가 사 준 것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찾으러 오기는커녕 전화도 끊기고, 집도 이사 가서 찾을 길이 없다. 자전거를 찾으려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자전거를 포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시릴은 수신자 없는 전화기에 매달리고, 보육원에서 달아난다.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자전거, 내 자전거, 아빠가 사 준 바로 그 자전거.'

우연히 시릴과 부딪힌 사만다(세실 드 프랑스)가 중고로 팔려 나간 소년의 자전거를 되사서 가져다 준 것은 한 번쯤 딱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회적 선행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의 때문에 사만다는 시릴의 주말 위탁모가 된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서가 아니라 시릴이 그래주길 바랐기 때문에.

시릴이 사만다에게 위탁모가 되어달라고 한 것은 자전거를 찾아 준 너그러운 어른에게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전거를 판 사람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신의 자전거를 팔았을 리 없으니 그 녀석은 도둑임이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시릴의 아빠는 아이의 자전거 뿐 아니라 자신의 오토바이도 함께 팔아치웠다. 아이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두 바퀴에 싣고 페달을 함께 밟아 달려가는 대신, 육아에 지치고 생활고에 치이는 불안한 안장에서 내려서 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이미 안장에서 내렸지만 시릴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있다. 미친 듯이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지만 이미 그 자전거에는 희망도 기대도 실려있지 않다. 그래서 시릴은 자꾸 엇나간다.

자전거를 되찾아 준 이가 아빠가 아니라 사만다이므로 사만다는 이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자전거를 빼앗지 않을 거라면 옆에서 함께 달려야 한다. 그렇게 달리는 것이 숨 가쁜 일이라 해도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는 그 일이 가슴 가득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게 되는 것은 자전거를 직접 타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감각이다. 그 감각이 불러일으킬 감정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탄 소년〉은 관객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동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렇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이는 아이에게 자신만의 값진 세계를 선물하는 사람이며, 아이와 자전거를 함께 타고 달리는 이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 겪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어른은 '자전거를 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쓰러진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자신이 가야할 곳에 자전거를 기대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 아이에게는 바로 전륜성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자전거 탄 소년〉은 보는 내내 숨이 막히지만, 영화가 끝나고 자전거를 탄 소년이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순간 한껏 달려온 호흡을 풀어내도록 만든다. 이 아름답고 벅찬 영화를 보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진다면 혼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이고 싶어서일 것이다.

〈영화평론가〉





산하대지가 어찌하여 생겼는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⑱ 진여

〈원문〉 부루나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세간의 일체 근(根)·진(塵)·음(陰)·처(處)·계(界) 등이 다 여래장이라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의 모든 유위의 모습이 생겼으며, 차제로 옮겨 흐르다 마치고 다시 시작하나이까? 또 여래께서 말씀하시되 지(地)·수(水)·화(火)·풍(風)의 본성이 원융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고요히 항상 그대로 있다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지(地)의 성품이 두루하다면 어떻게 물(水)을 용납하며, 물의 성품이 두루하다면 불(火)은 생기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의 성품이 함께 허공에 두루하여 서로 능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땅의 성품(地性)은 장애하고 공의 성품(空性)은 비워 툭 터진 것인데 어떻게 둘이 함께 법계에 두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루나야, 네 말대로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홀연히 산하대지가 생겼는가 하니 너는 듣지 못했느냐? 여래가 설하기를 성각(性覺)은 묘명(妙明)하고 본각(本覺)은 명묘(明妙)하다 하였느니라. 성각은 밝기만 한데 허망하게 밝혀야 할 각(明覺)이 되었느니라."

〈강해〉 〈능엄경〉 4권에는 부루나가 등장하여 부처님께 여쭌다. 지금까지 오온, 육입, 십이처, 십팔계, 칠대가 모두 여래장인 미묘한 진여의 성품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이 진여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번뇌가 없어진 경지인 무루(無漏)에 오른 부루나도 이해가 잘 안 되어 부처님께 여쭈어 본 것이다. "淸淨本然커니 云何忽生 山下大地 諸有爲相 고" 한문 원문의 이 구절은 하나의 공안이 된 말이다. 선사들의 법거량에도 인용되기도 했다. 처음 묻는 스님이 "청정본연커니 운하홀생 산하대지 제유위상고" 하니 질문을 받은 스님도 똑같은 말로 응대했다. 청정본연 하다면 어째서 산하대지의 온갖 차별상이 생기게 되었느냐고 물은 것인데 대답한 스님은 청정본연한데 어째서 산하대지의 온갖 차별상이 생겼다고 하느냐의 뜻으로 되물은 것이다. 질문한 사람은 청정본연과 산하대지를 둘로 보고 묻고, 대답한 사람은 하나로 보고 반문한 것이다. 이것은 선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부루나의 질문은 각자(覺者)였던 부처가 어째서 불각자(不覺者)인 중생이 되었느냐는 말과 같은 뜻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신론〉이나 도서 등에서 미십중(迷十重), 오십중(悟十重)의 이론을 펴면서 삼세(三細), 육추(六麤)의 구상차제(九相次第)를 말하는 교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능엄경〉의 이 대목도 매우 난해한 곳이라고 예로부터 말해 왔다. 부처님이 부루나에게 해준 말씀에 "성각은 묘명하고 본각은 명묘하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성각(性覺)이 필명(必明)하여 망위명각(妄爲明覺)"이라는 구절은 어느 경전 어떤 구절보다 어려운 구절이라고 인식해 왔다. 이 말을 승의(勝義) 중에 진승의성(眞勝義性)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기도 했지만 역대 많은 〈능엄경〉 주소가들이 갖가지 이견(異見)을 표출한 대목이기도 하다.

"성각(性覺)은 묘명(妙明)하다" 한 것은 산하대지 생긴 근원이 되는 불성, 혹은 법성의 성품 자리를 가리켜 성각이라 하였으나 성각이 결국 본각인 것이다. 그런데 묘명(妙明)과 명묘(明妙)는 서로 글자가 바뀌진 말인데, 묘(妙)는 체(體)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명(明)은 용(用)을 가리키는 말로 본다. 묘명(妙明)이라 말하면 자체에서 작용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명묘(明妙)라 하면 용을 거둬 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게 된다. 말하자면 종체기용(從體起用), 섭용귀체(攝用歸體)의 체용관계를 서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라 한다. 능엄십의 중 4권의 대의를 회상귀원(會相歸源)이라 말해왔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묘명은 적조(寂照)가 되고 명묘는 조적(照寂)이 된다. 부루나는 산하대지의 차별된 모습을 의식하여 이 차별이 왜 나왔느냐고 물은 것이지만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묘하다는 말속의 깊은 뜻은 산하대지가 없는 것인데 왜 산하대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뜻이 숨어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일주천 후 한 물건 내단전에 안착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⑱ 반신소주천의 완성

이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은 기운을 보다 완전하게 순화시키고 반신 소주천을 완성하는 것이다. 반신 소주천의 완성은 황정을 세워주는 것이다. 황정을 내단전이라고 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하단전의 한 물건을 명문으로 빼내는 과정이다. 들숨에 온몸으로 후천기를 받아들여서 명문에 집약시킨다. 이때 한 물건은 하단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과 명문을 함께 울려준다. 하단전의 한 물건이 명문으로 이동한다. 명문에 농구공만 한 열기의 덩어리가 매달린다. 이때의 열기는 한 물건과 선천원기, 후천기가 합쳐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명문의 기운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는 과정이다. 들숨에 온몸으로 후천기를 받아들여서 명문에 저장한다.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명문의 기운이 중심으로 올라온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영대를 주시하면서 숨을 들이쉰다. 중심의 기운을 갈비뼈를 통해 영대로 보낸다. "옴~~~"하고 숨을 내쉬면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주시한다. 이때 영대와 중심 사이에서 중극 기점을 인식한다. 중극 기점은 영대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 약 5cm 정도 안쪽에 있다. 중극은 4선정의 무념처가 세워지는 자리이다. 4선정의 견성오도가 중극 기점에서 이루어진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중극을 인식해 주면 기운의 순화가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진다. 기운의 거칢이 사라질 때까지 갈비뼈 순화를 반복한다. 기운이 순화되면 하단전으로 내린다. 들숨에 영대를 주시하고 날숨에 '옴' 자 발성으로 하단전을 울려준다.

하단전에 다시 한 물건이 형성된다. 본성으로 한 물건을 비추면서 중심 기점과 하단전 기점을 함께 주시한다. 한 물건이 밝은 달빛으로 변화되면 명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명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단전의 한 물건을 명문으로 이동시킨다. 들숨에 후천기를 받아들여서 명문에 집약시킨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하단전과 명문을 공명시킨다. 반복하면 하단전의 고요함이 명문까지 확대된다. 하단전과 명문이 하나로 통합된다. 하단전의 한 물건이 명문으로 이동해 간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명문의 한 물건이 영대를 거쳐서 중심으로 이동한다. 갈비뼈 순화를 하다 보면 중심과 영대 사이가 텅 비워진다. 마치 농구공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운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인식된다. 각성을 놓고 보면 일시적 무위각이 돈독한 상태이다. 가슴바탕에서 순화된 한 물건을 하단전으로 내려서 명문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주시한다. 양쪽 갈비뼈를 따라 한 물건을 영대로 보낸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하단전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영대의 한 물건이 중심을 지나 하단전에 이르고, 다시 명문으로 이동한다. 명문에 머물러서 후천기를 집약시킨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반신 소주천을 일주천(一周天)한 것이다. 일주천을 이룬 후에 명문의 한 물건을 내단전에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반신 소주천의 완성이다. 하단전과 명문에 의지를 두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쉰다. 그러면서 명문의 한 물건을 하단전으로 이끌어온다. 숨을 내쉬면서, 하단전의 한 물건을 다시 명문으로 밀어낸다. 이때는 '옴' 자 발성을 하지 않고 아랫배의 유격과 호흡의 감각만을 활용한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명문 쪽으로 밀어낸다. 그때,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그 자리에 한 물건을 안착시킨다. 그 자리가 내단전 자리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⑱ 진실되지 못한 망상

선택 없는 마음작용

사물에도 이름들이 존재하지만 사물이 아니어도 이름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물과 또 다른 이름 붙여진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이름으로 불리고 나면 그 이름을 그 사물 또는 사물이 아닌 것의 지칭으로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다른 것은 떠올리지 않게 최적화 되어있다. 인간이 사물과 비사물(非事物)에 붙인 이름은 분명한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름으로 사용되고 나면 우리는 서로의 암묵적 합의 아래 그것으로 인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된다. 만약 '자전거' 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똑같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물건을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릴 것이다. 다만 그 떠올린 모양은 각양각색이겠지만, 그 작동원리는 같은 그것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듣고 같은 것을 떠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듣고 그것을 떠올린 사람과 떠올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까? 아마도 그가 그 언어를 모르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알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왜 그것도 모르지?' 라는 의구심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것이다. 왜 우리는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알까? 아마도 대상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납득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누구에게나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일들이다. 어떤 때는 전자가 나의 경우가 될 것이고, 어떤 때는 후자가 나의 경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를 내리려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다. "변화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나' 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한, 그 내린 판단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을 망상이라 하고, 그 밖의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을 제일의(第一義)라 말한 것은 아니네."

'나는 있다/나는 없다, 좋은 것/나쁜 것, 착한 일/악한 일, 올바른 일/그릇된 일' 등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한 것은 비교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자(허상)의 바람이지 본질이 나뉜 것은 아니다. 그 본질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허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허상으로 바르게 보는 마음이 오직 스스로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허상으로 보는, 치우치지 않은(편안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기대하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허상이 보는 현실이라는 곳에서는 분명히 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반대로 생각될 것이다. 모두가 허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 두 가지 모두를 허상으로 보는 스스로가 손해를 본다는 망상이 일어나겠지만, 이익과 손해 또한 하나의 덩어리이고 둘 다 허상이지 어느 하나가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망념이 일으키는 것이지, 스스로가 일으키는 마음은 아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한다. '눈뜨고 코 베인다.' 는 속담처럼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주 속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른 마음을 지속하려면 어떤 특별한 마음이나 특별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대오온은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삶에 빠지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고 만다. 삶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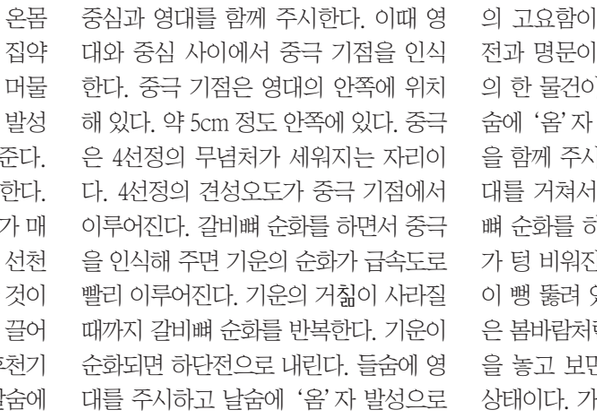
〈(사)여시아문 선원장〉

*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Live your dreams with lantern festival

꿈을 담은 연등회

내 꿈이 타오른다



전통문화마당
어린이 사생대회
전북도민 노래자랑
봉축 법요식
제등행렬
축하공연(배아현, 비뮤티, 박현빈)

Jeonju

www.liveyourdreams.kr

5. 13.(토) 10시 ▶21시
전라감영 특설무대

(사)불교문화보존회·전라북도 봉축위원회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과 다르면 법당서 누구 망신?....비교시 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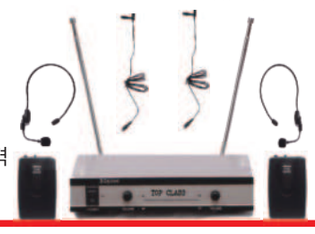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증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5호 | 17 | 전면광고

위 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려는
마음 냈다면 그것이 바로 출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사찰로 사용 적합

- 경북 영천IC 1분 거리 대도로 분 부지 1,000평
- 건물 140평 정남향
- 불교요양원, 포교당, 사찰운영
- 가액 30억

010-3540-0196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건물, 토지(지번 공개) 상담 후 지주 승낙 시 가능
- 경기권, 경북권, 충북권, 충남권, 강원권 소 · 대형 사찰 인수하실 분 단체나 법인, 개인
- 소형 2,000만원부터 사찰 부지 또는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의 오지 터
- 공시지가 이하, 소형임야 또는 대형임야 사찰부지

1. 계약금 걸고 대형사찰 잔금 대출금으로 양도 가능
2. 한적한곳 깨끗한 개인 집 1억 미만

010-3184-536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농막·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 평수 : 1898㎡당. (574)평
- 용도 : 토굴, 주말농장
- 보전관리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곳, 도로, 골짜기, 전기접
- 가액 : 3,600만원

010-5454-766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암자 안내(월세)

- 경남 진주시 정촌면(아울렛 옆)
- 500/40(월세), 권리금은 협의.
- 시내와 IC 모두 5분 거리
- 150평(마당 110평, 건평 40평) 마당 수리함, 주차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646-3385

김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구산동 시영 아파트 상가 3층, 301호
- 3층 크기 약 60평
- 매매금 : 2억 8천만원 (시설 포함, 융자 1억 포함)

010-3485-4952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6길 30, 3층 도불사(한국불교태고종)

- 법당 : 63평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 월세 210만원, 관리비 30만원
-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열반하심)

010-3784-0181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포교원 안내(40년)

- 위치 : 수영 R-Y 부근, 2층 40평
- 법당 : 아미타, 관세음, 지장, 신중, 영단, 소불 200불
- 전세 : 2천/35만원, 사권 2300만원

주지 소임 관계로 급, 즉시 법회 가능

010-9695-1060
051-727-2421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811-0118

사단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여래불교 조계종(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큰서원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책무로
사단공익법인여래불교 조계종 창종을 알리며 본 종단과 함께 펼쳐나갈 전국에 계시는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대 표 이 사 **현담 법오** 총 무 원 장 **덕평**

총회의장 **민호**	문화원장 **하담**	사회부장 **삼초**
총무부장 **설오**	포교원장 **문성**	교무부장 **건호**
교육원장 **재오**	재무부장 **성도**	포교부장 **무진**

입종서류 :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스님 : 총무원장 덕평 스님 **010-6219-4757** / 이사장 법오 스님 **010-2357-7747**

주소 : 인천 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창대 장터 상가 2층 202호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5호 | 18 | 전면광고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무료상담

(법률 세무 및 신행상담, 명상법회)
선행, 송기명 법사(010-3686-4807)
정호스님(법무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명상법회(보리방편론)
명상지도사 : 김석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선정원 02-733-552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⑧ 녹차(綠茶)

신장에 좋은 '소양인' 꽃차

녹차는 차를 대표하는 꽃차이다. 차의 역사는 신농씨(神農氏)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 차인들은 〈다경(茶經)〉을 저술한 육우(陸羽, 733?~804)를 차정신의 시조로 삼고 있다. 육우는 '다도(茶道)'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교연(皎然, 720?~798?) 선사의 영향을 받은 제자라 하겠다. 교연 선사는 '차로써 술을 대신한다' 는 '이차대주(以茶代酒)' 의 대중교화 운동을 펼치면서 정신을 맑게 하는 차를 마시게 하였다.

우리나라에 차나무가 전해진 것은 〈삼국사기〉에 "신라 42대 흥덕왕(興德王) 3년(A.D. 828) 12월 김대렴(金大廉)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차나무의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어 번성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용부위는 잎, 뿌리, 종자를 약용하는데, 잎은 주로 음료용으로 활용한다. 우전(雨前)은 곡우(穀雨, 4월 20일)를 기준으로 대략 10일 전에 처음 딴 어린 녹차 잎이다. 세작(細雀)은 곡우를 기준으로 대략 10일 후에 딴 것으로 찻잎이 참새의 혓바닥 크기라는 의미로 '작설(雀舌)' 이라 부른다.

성분과 약성

탄닌(tannin), 카페인(caffeine), 유리아미노산(freeamino acid), 데아닌(theanine), 글루타민산(glutamic acid), 비타민(vitamin)류,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망간, 철, 사포닌(saponin) 등이 있다. 녹차는 성질이 차고, 맛은 쓰고 달다. 녹차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 등에 좋으며, 마음 안정에 좋다. 식중독 예방 및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변비 예방과 이뇨작용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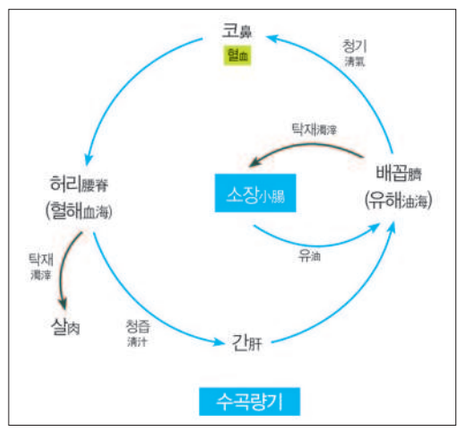
마음 · 기(氣)작용

녹차는 신장(腎臟)에 좋은 소양인의 꽃차이다. 찻잎을 가공하는 것에 따라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누는데, 이것을 6대 다류(茶類)라고 한다. 찻잎을 가공함으로써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즘 많이 마시는 보이차(普洱茶)도 마찬가지이다. 인삼(人蔘)을 구증구포(九蒸九曝)하여 중화시킨 홍삼(紅蔘)도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약한 사람은 녹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사상의학으로 보면, 몸이 차가운 소음인과 태음인은 주의해서 음다해야 한다.

맛이 쓰고 회감(回甘)이 있는 녹차는 데아닌 성분이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며,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소양인의 신장 기운을 도와서 온화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이루게 한다.

녹차는 몸의 열을 내리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는 간당에 흐르는 수곡량기의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





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된다.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녹차는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녹차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부종을 완화하는데, 이는 수곡한기의 정해(血海)와 관계된다. 수곡한기에서 신장은 방광에 있는 정해의 맑은 즙을 빨아 들여 신장의 원기를 더해 주기 때문에 녹차는 정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제다와 음용

녹차는 3~5월에 채취한다. 250℃ 이상 높은 온도에서 골고루 뒤집으며 덖는다. 찻잎을 식혀서 유념한다. 고온에서 온도를 조절하며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완성한다. 녹차 3g에 물 250ml를 100℃로 끓인 후 75~80℃로 식혀서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녹차에 매화차를 블렌딩한다. 녹차 블렌딩은 혈액을 맑게 하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암, 당뇨 등 성인병을 다스린다. 녹차를 2분 이내로 우려 찻잔에 찻물을 따르고, 매화 1송이를 띄워 마신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우전은 구운 곡물향, 끝에서는 과일의 싱그러운 향이 났다. 우림한 차에서는 입안에 퍼지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나고, 입안 끝에서 남는 난꽃향으로 섬세하고 부드럽다. 특히 미원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을 주므로 구감과 목 넘김이 최고다.

세작은 고소한 향, 바닐라향, 난향, 차꽃향이 났다. 우림한 차는 전체적으로 우전보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는 다채롭고 화사하다. 쓴맛과 떫은맛은 확실히 우전보다는 혀에 남는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

또 다른 시음자는 녹차는 평소 명상과 정신 집중으로 마시던 차이다. 잘 제다된 녹차에서 다가오는 시원한 향은 코를 자극하였다. 그러나 녹차의 카페인으로 정신이 각성되고,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멀리하게 되었다. 녹차를 마신 후에 느껴지는 쓴 맛에 다가오는 미묘한 특유의 맛이 나를 자극하였다. 또 보이차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건 잎에서는 풀 비린내가 나고, 우림한 차에서는 풀 향과 구수한 향이 있다. 시음에서는 맛과 향이 전체적으로 구수하여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다. 목 넘김이 좋고 떫고 쓴맛이 있지만 끝에서 회감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편안해지고 속이 편안해진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건 잎에서는 풀냄새가 나고, 우림한 차에서는 삶은 지푸라기냄새가 난다. 시음에서는 입안을 깔끔히 해 주고, 차를 마실수록 약간의 갈증을 느낀다. 입 안에 떫은맛이 있고, 속은 편안하다. 차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확실히 느껴진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김영숙의
효소건강칼럼
④ 효소를 고르는 방법

발효균주 · 당 함량 확인은 '필수'

영국의 마켓리서치 기업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전세계 식품용 효소 시장은 2019년 약 3조 9039억 원(30억 달러) 에서 연평균 성장률 7.62% 증가하여, 2024년에는 5조 4679억 원(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그 중 우리가 흔히 먹는 효소 식품(가공식품)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2억 달러 중 약 20억 달러를 효소식품(가공식품)이 차질 할 만큼 큰 시장이다.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의 효소 열풍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효소는 다이어트 카테고리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할 만큼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다. 살짝만 검색해봐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다보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를 때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효소 제품을 고를 때는 다음 4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발효균주의 종류 △당 함량 확인 △역가수치 (정제와 자연발효) △효소의 제형이다. 먼저 발효균주의 종류는 식약처에서 효소 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들일지라도 어떤 발효 균주를 사용 했는지에 따라 효소의 발효능력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어떤 효소 제품이 올바른 방법으로 발효 되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발효가 잘 되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장 많이 연구된 발효균주인 'bacillus amyloliquefaciens'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진짜' 효소를 원한다면 제품박스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에서 발효균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당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효소는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 되기에 막 제조를 마친 효소에서는 흡사 청국장, 된장과 같은 향이 난다. 이 역한 맛을 숨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설탕을 대량으로 넣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채 칼로리만 확인한 후 당이 높은 효소를 섭취하고 있다. 만약 당이 높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먹게 된다면 설탕 덩어리를 먹는 사람과 똑같이 체중이 불어날 것이다. 초코, 블루베리, 곡물맛 등 맛있는 효소라면 한 번 더 의심하고, 당 함량을 꼭 점검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역가수치이다. 역가수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효소의 활성도를 뜻한다. 보통 1분 안에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물질(대개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해 낼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높은게 좋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높은 역가수치는 사람에 따라 속쓰림, 가스, 복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가장 좋은 성분을 지니고 있을 지라도 내 몸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샘플을 먹으며 자기 몸에 맞는 효소의 활성도를 찾아야 한다.

정제효소 아닌 '자연발효 효소'가 좋아
열에 약해 온수보다 냉수로 음용해야

높은 역가수치의 부작용은 대게 '자연 발효 효소' 가 아닌 '정제 효소' 를 첨가하는 데서 오기도 한다. '정제 효소' 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효소이기에 소화제와 성분이 비슷하여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내 몸에 맞는 역가수치를 지닌 효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은 효소의 제형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의 리뷰를 보면서 막연하게 제형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소는 제형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진다. 물에 타먹는 형태, 분말 섭취 형태, 알약 형태 등 제형에 따라, 효소가 몸에 흡수되는 속도, 가공과정에서 성분이 파괴되는 정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골라선 안 된다.

물에 타 먹는 제형은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은 사람에겐 음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효소 자체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좋은 성분도 동일하게 희석된다.

또한 효소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물과 마시게 되면 유효 성분이 모두 파괴된다. 적정 수온을 맞추는 과정은 섭취를 번거롭게 만든다.

효소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기초 가공을 마친 효소의 기본 형태는 분말 제형이다. 분말 제형의 효소는 추가 가공이 필요한 타 제형과 달리 불필요하게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다는 뜻이다.

분말형의 부수적인 장점은 타 제형들과 달리 섭취 시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간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알약을 삼키는데 있어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복용하기에 간편한 제형이다. 분말형은 흡수율 부분에서 다른 제형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의사약전에 따르면, 제재에 따른 흡수율을 연구해보니 알약형의 흡수율은 겨우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형을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효소를 골랐다면 제대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소를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타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물에 타지 말고 먹는 것도 추천한다.추운 겨울철에 소화불량증을 겪는 사람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낮은 온도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차가운 공기에 배가 장시간 노출되면 열을 빼앗겨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겨울철에는 지방분해 효소가 추가된 제품을 더 추천한다. 지방을 분해하려는 배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방분해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전문가〉

일일시호일

버스 교통사고로
신장 한 쪽과 간 절반 잃어

베트남 유학생 응예틴찐씨, 장기 파열 · 근육 괴사
3차례 대수술에도 생사 불분명…병원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줄요약
당신은 평소에 마음속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고통을 달래주는 하얀 늑대인가, 아니면 고통을 증폭시키는 회색 늑대인가?

마음 속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줘라



필자는 10여 년 전에 금연을 시작했고,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금연 시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지속하지는 못했다. 피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면서 참았기 때문에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했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의 하나가 직장 근처 대학병원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받는 것이었다. 전문의와 상담 후 자연스럽게 금연 보조약을 처방받았다. 해당 약은 흡연을 일정 기간 계속하되 이후 자연스럽게 금연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약이었다. 보통 약을 사용하고 5주 차 이내에 금연을 시작하도록 안내되어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약을 먹은 후 3일 차 이후 바로 금연을 시작했다.

금연 '한 것' 이 아니라 금연을 '당한 것' 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담배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 원리는 간단했다. 니코틴이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도파민이 뇌에 기쁨과 행복감, 만족감 등을 가져다준다. 흡연했을 때 만족감을 얻는 이러한 작용 때문에 흡연에 중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복용한 약에 포함된 특정 약물 성분이 니코틴을 대신해서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음으로써 니코틴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주었다. 흡연하여 니코틴이 몸 안에 들어와도 도파민 보상이 일어날 기회를 안 주어 담배 맛은 못 느끼고 연기를 마셨다는 해로움만 느끼게 하여 담배를 멀리하게 해준다는 것이 해당 약을 만든 제조사의 설명이었다. 담배에 대한 생리적 욕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쉽게 금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금연 보조약의 원리였다. 같은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아주 이른 시간에 부작용 없이 금연할 수 있었다. 필자의 금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명상을 통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 감정, 행동들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의도적 결과로 인식된다. 하지만 고요히 멈추어 마음이 작동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는 것과 같았다. 그 욕망 속에서 괴로움이 싹트고, 그 괴로움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삶은 불행해진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경험하는데 1차 고통은 누구나 직면하는 순수한 고통으로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상, 질병, 만성 통증과 같은 신체적 고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별, 실망, 직장 상실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 자연재해, 사고, 전쟁 등과 같은 충격적 트라우마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반면 2차 고통은 우리의 반응과 관련된 고통이다. 이는 주로 우리가 1차 고통을 피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다. 자기 비난과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 관계 회피, 과도한 걱정과 불안, 술이나 마약 같은 중독 행동, 과도한 자기 통제나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마음의 작동원리를 볼 때 1차 고통은 마음의 원재료이다. 이 원재료를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후 고통과 반응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고통이 증폭되지 않는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2차 고통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행복한 삶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2차 고통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2차 고통이 적으면 적을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상윳따니까야〉의 '화살경' 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설해져 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꿰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꿰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다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고통에 맞은 화살에 꿰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꿰찔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마음 속엔 하얀 늑대와 회색 늑대가 산다
회색 늑대는 분노, 두려움 등이 가득 찼고
하얀 늑대는 사랑, 평화, 희망이 가득 찼다
마음 속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정신적 느낌이다. 비구들이여,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 경험할 뿐이며 결코 정신적인 느낌은 겪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그 첫 번째 화살에 연이은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화살로 인한 괴로움만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일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이지 않으며 그는 괴로움에 매여 있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셨다. 첫 번째 화살은 삶 속에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맞는다 하더라도, 성스러운 제자 즉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오직 첫 번째 화살로 인한 괴로움만 겪는다. 첫 번째 화살은 맞았다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가 되려 괴로움을 없앤다. 싫어해 거부하고, 좋아하여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것이든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진정한 수행은 전적인 수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분별심이 작동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 조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택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2차 고통을 유발하는 반응이 일어나려 할 때 알아차리면 그 반응이 약해진다.

비디이말라 버치와 대니 팬맨의 저서 〈기적의 명상 치료〉에 다음과 같은 우화가 나온다. 그레이트 스코키 산맥에서의 어느 상쾌한 가을날. 한 무리의 체로키 인디언 아이들이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들었다. 다들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몇 시간 전 두 남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부족의 원로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아이들은 이 원로가 무슨 말을 할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한 어린아이가 물었다. "사람들은 왜 싸워요?" 원로가 대답했다. "그건 말이지, 우리 마음속에 늑대가 두 마리 살고 있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우리들 속에도 있어요?" 원로가 대답했다. "그럼,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회색 늑대야. 회색 늑대는 분노, 두려움, 씁쓸함, 질투, 부러움, 탐욕,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단다. 하얀 특대는 사랑, 평화, 희망, 용기, 겸손, 연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단다."

또 다른 아이가 물었다.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원로가 대답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당신은 평소에 마음속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고통을 달래주는 하얀 늑대인가, 아니면 고통을 증폭시키는 회색 늑대인가?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반면 회색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첫 번째 화살에 저항하면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이 되는 행위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신 죽음의 수용소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정신분석학자이다. 그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의 의미' 라고 말한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극적인 순간마다 그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다. 그는 최선을 다해 매일 매일의 삶에 충실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살아남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가를 인류에게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주인을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은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마음의 작동원리는 이해를 넘어서 수행을 통한 통찰이 전제됐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원래 따뜻했던 가슴이 열리면서 세상과 자비로 연결되게 된다. 나 하나로부터 시작된 자비의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불법(佛法)유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청년 불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청년 포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토) 19:30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BTN불교TV 최고인기 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일) 22: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항상 나를 한번 돌아보라

L.A.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넘기고 그냥 갈 수는 없다고요.

불교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것인가.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될 것이고, 종교라는 그 자체의 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라고 하죠. 그렇다면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떻게 국한돼 있겠습니까. 불교를 국한된 종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영 틀린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겠고, 두 번째는 인간의 도리를 알려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하며, 나 자신의 주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는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항상 나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가정이 편안하고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다는, 필수적이라고 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또는 기독교다 불교다 가톨릭교다를 떠나서, 그 이름은 한계가 있는 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버스라면 우린 지금 같이 타고 가는 그 버스가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교가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하고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 무슨 대승법이다 소승법이다 하고 싸우겠습니까. 벌레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뚱이 속에 조그마한 별성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속의 오장육부나 세포에서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상세히 알고 본다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벌레라고 하고 지구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가 따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생활이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진리이며 그대로 평등하며 그대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바로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고, 생각을 안 내면 부처인 것이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인 것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9%가 부처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당에 가면 석가모니를 모셔 놓고 문수, 그다음에 보현을 모셔 놓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달은 분들은 한생각을 내는 것을 바로 법신으로, 문수로 칩니다. 그리고 움죽거리는 것을 보현으로 칩니다. 그렇다면 한생각에서 바로 움죽거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자 보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언짢고 이런 말을 잘하죠. 여자 남자도 가립니다. 비구 비구니도 무척 가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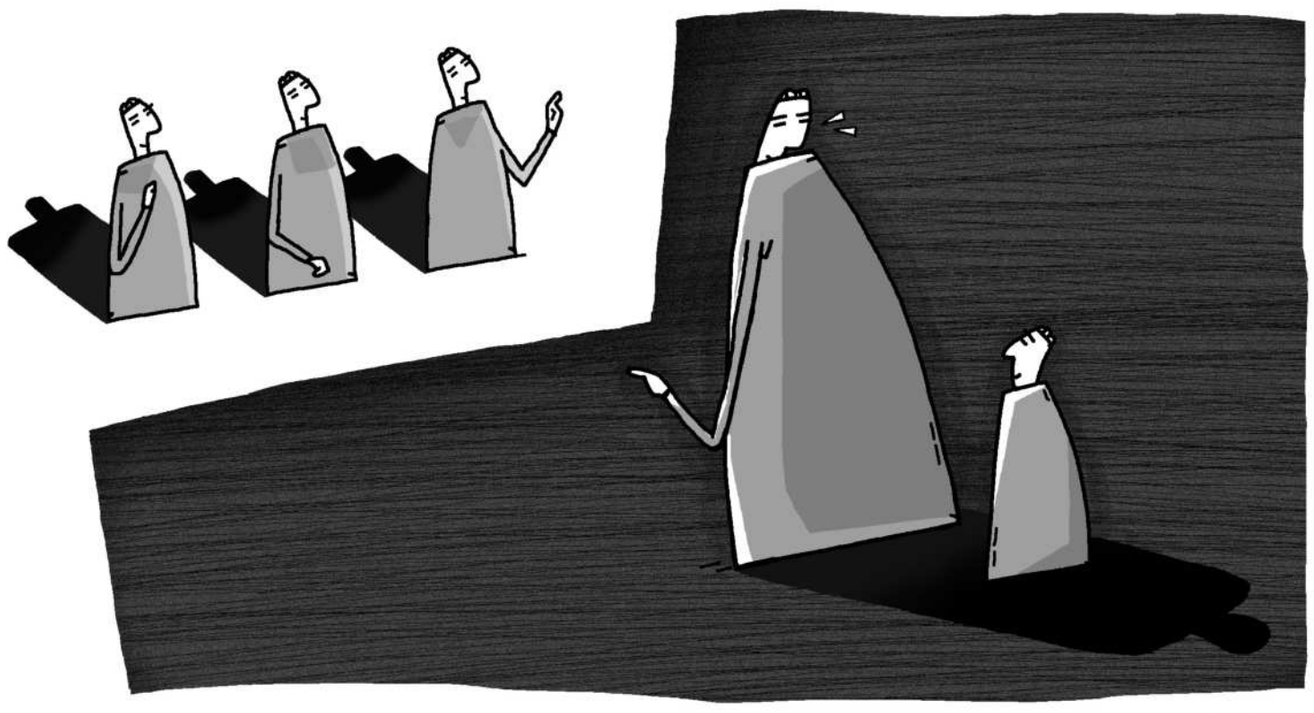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와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째 비구니인데 '큰' 자를 붙이느냐고요. 전화에다 대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직껏 당신이 비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비구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근데 스님께서는 비구도 알고 비구니도 아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난 훌륭칠 못해서 비구니 비구를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랬죠. 이런 말을 한 예가 있고, "그러면 비구 비구니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오시죠." 이런 말도 한 예가 있죠. 그런데 안 오셨어요.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갔다 와 보십시오. 어디 뭐가 놓이고 어디 뭐가 놓였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방 갔다 오실 겁니다, 빛보다 더 빨리.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 바깥으로 훌쩍 떠나서 이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나. 이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는 까닭에, 그리고 분별이 많은 까닭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좋은 거는 잘 알지만 나쁜 거 좋은 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살던 바로 그 업보가 인으로 인해서 과가 돼서 뭉쳤으니 너는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또는 세균성이 모두를, 오간지옥의 업보도 당신이 저질렀으면 그것을 해결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물질로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지수화풍이 있는 관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시쳇말로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내놔 주는 것이 있다면 저장을 했다가 주는 무정물도 있고, 저런 목신들도 다, 나무들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에게 바로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사장이 없으면 직원도 없다는 사실이죠. 서로가 먹지 않고 서로가 공생을 안 한다면, 또 서로가 공용을 안 한다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종교가 따로 있는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상대성도 없을 것이고 또는 종교도 없을 것이고 부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화풍으로부터 이런 컵도 출현을 했습니다. 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현을 한 겁니다. 흙에 물을 붓고 그렇게 만들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웠습니다. 바로 우주 개공이 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 하나 그냥 놓여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 보신 분 없습니까? 우리는 지수화풍의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과 전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재료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 이 세상에 났다면 모두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오신통이라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불가에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지금 현재 용어로다가 대 보죠. 이 천안통을 바로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한다면 숙명통 그것을 바로 컴퓨터라고 칠 수 있습니다. 천이통을 천체무전통신기라고 칠 수 있습니다. 탐지기를 바로 타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족통을 팩스라고 해도 됩니다. 누진통을 바로, 뭡니까?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가, 누진통 빼고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돼 있는 까닭에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제를, 바깥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이런 파워가 일어나든지 모든 통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업보, 인과응보, 유전성,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지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즉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의 컴퓨터에는 이 세상을 거쳐 오면서 과거에, 내가 나기 전에 살

☞ 22면으로 계속



벌레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던 그 모든 것이 거기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누가 팔자다 운명이다 하기 이전에 그냥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쓰라림이 오나, 이러시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입력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입력된 데다가 다시금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한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실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거를 없애는가? 그걸 거기다가 놓는 반면에 '어, 거기에서 입력이 된 거니까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는 왜 주인공이라 하는가?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으니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라 하면서 주인은 공했어. 그러니까, 공했으니까 주인도 없다는 얘기죠. 왜? 찰나로 돌아가니까. 고정됨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다 되맡겨 놓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인공만이, 거기서 병난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또는 거기서 고독함도 생긴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것이에요. 고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밖엔 없으니까. 그래서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놔라 이 소리죠.

일체를 그렇게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실 때 '내 불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청정한 것은 더럽고 깨끗하고 높고 낮고, 또는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평등하다. 그 평등한 거를 청정이라고 그럽니다. 바다에 똥물이고 더러운 물, 핏물이고 다 들어가서 가라앉히는 그런 너그러운 바다의 물과 같은 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선반에 얹어 놓고 깨끗하게 잘 두는 것만이 청정이 아니라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래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는데 '내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그렇게 알았으리까.' 이 소리죠.

여러분이 배고프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먹죠? 배고픈데 이유를 붙이고 밥 먹는 법은 없고, 목마른데 이유를 붙이고 냉장고 문 열고 물 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여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 '내 어찌 갖춰 가지고 있음을 알았으리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갖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돌아가. 용광로에 모든 헌 쇠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재생이 돼서 나가듯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했죠. 비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몸뚱이를 오븐으로 치고요, 그 재료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오븐에다 넣어서 다 해 먹죠?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갖춰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여하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 들어오는 대로 "여보, 오늘 몇 시간이나 일했어? 피곤하진 않아?" 자동적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는 남편이 됐어요. 아내가 됐고요. 그런데 자식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죠. 그런데 부모가 "얘, 아비야! 벌써 갔다 왔니?" 하니까 어머니한테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동적으로 자식이 되고 며느리가 됐답니다.

그러면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평등한 것이며 그대로 불법인 것이며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고 그대로 바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여여하죠. 그리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것도 그 여여함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이유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그만 일에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따뜻한 데로 고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시면서 자식들이 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나가서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주인공!' 하고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어머니라는 가설이 돼 있거든. 그게 마음의 가설이거든요. 그러니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이 둘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불을 켤 줄 몰라. 여기 스위치만 누르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가설이 돼 있으니까. 한방 식구거든. 천 리를 간들 만 리를 간들 한방 식구거든요. 그러니 가깝고 멀고가 없다 이런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른 마음은 가깝고 멀고가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은 보지도 못하고 내놓을 수도 없지만, 비유를 한다면 이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못 보지만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력이 나가고 들어오는 건 못 보시죠? 통신력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못 봐도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듯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가 그렇게 사단이 많은지 들어오기만 하면 "또 왜 이렇게 늦었니? 아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음 한생각이 '야! 당신밖에, 내 주인공하고 쟤 주인공하고 둘이 아니니 이 주인공밖에는 이 몸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없고 마음을 이끌어 가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밖에는, 내 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게 바로 실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애를 지켜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지켜보면 바로 통신력과 밝음과 전력 광력, 그것이 서로 통해서 애가 아주 착하게 됩니다. 남편도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을 찾지 못해서 왔던 사람이 내 사랑을 찾게 되고, 내 가정에 화목을 못 찾던 사람이 화목을 찾고,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낫고,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을 면하고, 자유스럽지 못하던 사람이 자유스럽게 되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것을 무슨 이거는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고선, 아니, 끼리끼리 싸우는 거 보면 말도 못 합니다. 신도 수를 세어서 팔아먹지를 않나, 부처님 뼈다귀를 우려서 먹지를 않나, 이름을 팔아서 먹지 않나. 그러면서도 비구니 비구를 따지지 않나.

보십시오. 마음인데, 사방이 툭 터졌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고, 동서가 어디 둘입니까.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도 걸리는 게 많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봐도 '전자의 모자랐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봤으면 얼마나 그것이 지견으로써 지혜로써 보람 있는 인생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만날 틀리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거는 못하는 거고…. 항아리 바깥으로 벗어나야 이 항아리를 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아리 속에서 전부 제각기 이게 틀리다 옳다 하고 이 속에서만이 그러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음인데, 사방이 툭 터졌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고 동서가 어디 둘입니까.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도 걸리는 게 많습니까.

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면서, 절에 가는 것은 충전을 하러 가는 건데 옛날에 한암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은 많으나 그 절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짚신을 신고 방울을 달고 작대기로다 휘휘 둘러가면서 팔자걸음을 걸었거든요. 왜냐? 생명을 죽일까 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긴 애초에 글렀고요, 오히려 이 불교도 서로 뜯어요. 한마음으로 뭉쳐야 살 텐데 전부 제가끔들 헤어지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라는 상표를 가지고 이 상표가 옳고 저 상표가 옳고 이럽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얘, 너희 아들은 요새 좀 어떠냐? 손버릇이 나쁘다더니." 하고 물으니까 "스님, 참 고맙습니다." "왜 날더러 고맙대?"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스님이, 가설이 돼 있어서 내 주인공에다 스위치를 누르면 그 주인공에도 불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유년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너무나 착해지고 엄마의 고생도 알아주고 월급을 타면 꼭꼭 들여옵니다. 그러고는 빵 한 개라도 사서 그게 식을까 봐 겨드랑에다가 넣어 가지고 옵니다." 이러거든. "엄마, 시장하지 않아?" 하면서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생전에 스물다섯 살이 되도록 그런 소릴 처음 들어 봤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먹고살기도 바쁘고,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면서 먹고, 내가 여기 와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유 하나 빵 하나 들고 먹으면서 차 타고 가면서 머리 빗으면서 말하면서 이러고 가더군요. 그러니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합니까? 하하하. 그런 세상인데도 아침이면 주문 외워라, 백팔 배 해라, 삼천 배 해라 이렇게 한다면, 또 몇 시간씩 좌선해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자고 똥 누고 그냥 부지런히 뛰고 일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대로 행선이란 말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앉고 싶다 이럴 때 진짜로 앉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좌선이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 놓고서 '나는 요 시간이면 꼭 좌선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요.

서울에선 또 이럽니다. 여기선 모르겠습니다. 여기선 못 봤습니다. 방생을 한다고 말입니다, 아, 자꾸 고기를 한 자배기씩 사 가고 두 자배기 세 자배기씩 사 가니까, 거북이 새끼 뭐, 이런 것도 다 사 가니까 어부들이 자꾸 잡아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다 놓을 때 죽죠. 잡을 때 죽고 갖다 놨을 때 죽고, 가지고 갈 때 죽고 갖다 넣었을 때 죽거든요. 그럼 갖다 넣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제 시대 때, 즉 보급대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무슨 뭐, 그때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요, 8 · 15 해방이 되니까 털썩 그냥 놔 놨단 말입니다. 아무 데나 그냥 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차 꼭대기고 어디고 다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와 같이 그냥 방생한다고 가서 넣으니까,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온통, 10리든 뭐, 20리든 30리든 그런 거 아랑곳없이 찾아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사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방생입니까?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웅덩이 물이 위로 솟아서 다시 떨어질 때에 이 산에도 미꾸라지니 붕어니 새우니 가재니 뭐, 이런 것이 늘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렁이도 그렇고. 우린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통에다 물 담아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 있는 데 갖다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방생이라는 유래가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물에서 잘 사는 놈의 거를 왜 잡아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놀부지. 아니,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이웃에 병을 앓고 드러누워서 자식을 학교에 못 보내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방생 안 하고 그걸 해요, 그걸. 그걸 하면서 정말이지 지금 여기 돈으로 몇백 불을 버리면서까지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4월 28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올해도 꿀벌은 오지 않았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모락산서 정원을 일구며 산지 30년
2년 전부터 마당에 꿀벌 오지 않아
아인슈타인 "꿀벌 없으면 멸망한다"
이젠 눈 앞 현실된 기후위기 문제들

현재 지구가 병든 원인 인간에 있다
불교 연기법을 일상생활서 적용하는
조안나 메이시의 '재교감 작업' 주목
작고 치밀한 운동으로 사회 변화를

올봄에도 꿀벌은 오지 않았다. 찬란한 봄은 지나가는데 꿀벌님은 2년째 오시지 않는다. 의왕시 모락산 자락에서 조그마한 마당에 나무와 풀을 가꾸면서 산 지가 어언 30년이 넘는다. 다래 꽃이 필 때는 온종일 붕붕 하는 벌꿀의 날갯소리가 마당에 가득하였다. 올해는 꿀벌님이 오시겠지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다. 영춘화를 시작으로 목련, 라일락, 모과, 으름, 철쭉, 목단 그리고 다래에 이어지는 찬란한 봄의 행렬에 꿀벌은 나타나지 않는다. 몇 마리 나비만 스쳐 갔을 뿐이다. 꿀벌 없이 열리는 봄의 축제는 결코 찬란하지 않았고 꿀벌을 기다리는 꽃님들이 안타깝다.

"꿀벌이 절멸하면 인간은 4년 후에 절멸한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한다. 나는 지인들에게 2년 동안 꿀벌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 수명은 2년뿐이 남지 않았다고 농을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으스스하다. 꿀벌의 '사라짐'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꿀벌의 사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궁에 빠져 헤매고 있다고 한다. 꿀벌 사라짐의 문제는 결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커가고 있다. 지구촌에 사는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혁이 없으면 결코 꿀벌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인간이 지금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지구의 아픔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구별은 커다란 생명체이다. 지구의 중생들은 이 지구 어머니의 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머니가 크게 병들어 있다. 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 다양한 괴질에 시름겨워하고 있다.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인간 자신은 물론 지구별의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급기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희희낙락하고 있다. 달콤한 꿀물에 빠져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틱낫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고성제(苦聖諦)가 바로 연결된다. 고성제는 도성제로 가는 첫 출발지이다.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절절히 느끼는 것이 깨달음과 자비의 길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새삼 붓다 다르마의 지혜가 다가온다.

붓다의 지혜로 지구별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사는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여사를 소개하고 싶다. 생태철학자로서 불교와 일반체계이론, 심층생태학을 연구한 여성학자로 연구의 결과를 실천하기 위해 50여 년 동안 사회운동을 전개한 분이다. 필자는 그분의 저서 〈불교와 일반체계이론〉을 몇 번이나 열독하면서 공감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조안나 메이시는 '재교감(재연결) 작업 (the Work That Reconnects)'이라는 이름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붓다의 연기법을 우리 삶의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Active Hope〉란 제목으로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이 운동은 나 자신과 작은 주변의 공동체를 근거로 하는 운동으로 작고도 치밀하다. 바로 작고도 치밀한 운동으로 대변혁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기의 작은 바람이 저기의 큰 태풍이 되는 카오스 이론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한국불교는 엄청난 생태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 생태적 자산이 거대 담론으로만 소비됐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한국불교는 엄청난 생태교육장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전통 사찰이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꿀벌이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한국불교가 지구별을 구하고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의 대장정의 길을 걷는 모습을 그려본다.

社 說

'출가서 열반까지' 승려복지 새 시작

2018년 조계종 재무부가 공개한 승려 소임공제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스님은 전체 56%에 달했다. 심지어 600만원 미만인 스님들이 30%가량을 차지했는데, 스님들의 월 소득이 처음 공개된 결과로 세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세부적인 통계는 처음이었지만 종단은 이미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승려복지만이 출가수행자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복지사업 확대를 핵심 종책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치료비 지원 등을 거쳐 교구별 승려복지회가 출범하고, 지난 3일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개원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종단 직영의 요양병원은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표방하는 승려복지제도의 또 다른 시작이자 든든한 한 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제대로 된 거처조차 없이 노후를 보내거나 일반 요양원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종단의 울타리로 품어 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세웠던 故각현 스님, 그 유지를 이어 요양병원을 이끈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그리고 종단 직영을 제안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을 마중물로 이룬 대작불사다.

개원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요양병원 개원으로 "종단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더하고, 나아가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과 전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단을 구성하는 사부대중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 의료비 부담 없이 스님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함께 뜻을 모을 때다.

청년불자 양성은 시대적 화두

5월 2일에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식과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이 열렸다. 두 행사에서는 공통된 화두가 있었는데 바로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 활성화'였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건학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상월결사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서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대 핵심과제에 '청년불자 양성'을 신규 과제로 지정했으며, 합장데이 운영, 공양기도문 생활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회향식에서도 자승 스님은 종도감 호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향후 대학생 불자에게 활력을 전해주는 일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역시 치사를 통해 대학생,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다른 종교보다 신도 연령 구조가 취약한 불교에 필요한 것은 대학생과 청년 불자의 확대다. 잘 양성된 대학생·청년 불자들은 청소년 포교 지도자이자 미래 직장직능 포교사이고, 세대전승의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단과 동국대, 상월결사가 '대학생, 청년 포교 활성화'를 화두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원력이 모인 만큼 대학생과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맞춤형 포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학생 불교 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들도 활성화 돼야 한다. 청년 불자 양성은 한국불교의 시대적 화두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⑭ 나무를 심은 사람

우린 나무를 심고 있는가

앙드레 말로는 대표적인 20세기 프랑스 작가로 장 지오노(Jean Giono)를 꼽았고, 헨리 밀러는 "프랑스와도 바꿀 수 없는 작가"라고 장 지오노를 칭송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장 지오노의 말년 작품이다.

이야기는 프랑스에 사는 한 젊은이가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피에는 혼자 황무지에 살면서 도토리나무를 심었다.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는데, 나무로 자란 것은 1만 그루였다. 그렇게 34년 동안 나무를 심었더니 황무지는 수십만 그루의 떡갈나무 숲으로 바뀌었고 개울이 흐르고 새가 모여드는 생명의 숲이 되었다. 약 1만여 명이 함께 사는 마을이 된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된 부피에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캐나다 사람들은 무려 2억 7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부피에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황무지가 된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부피에가 나무를 심는 것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생태주의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아쇼카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치유력이 있는 약나무와 열매를 맺는 유실수와 연료로 쓸 나무, 집을 짓는 데 쓸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를 심을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 왕은 그것을 '다섯 그루의 작은 숲'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지금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보았는가."

부피에는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선업(善業)의 씨앗을 심고 가꾸었다. 부피에가 심고 가꾼 선업의 꽃과 과실은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1만여 명의 모든 마을사람에게 주어졌다. 연기(緣起)사상에 입각해 보면 개체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업인 별업(別業)과 전체에 미치는 공업(共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대량폐기를 조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서구문명은 인간을 자연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봤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UCLA의 역사가인 린 화이트(Lynn. White, Jr.)가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고 단언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느님이 그들(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느님이 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고 하셨다"고 쓰여 있다. 이 구절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존재라고 보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한 결과는 어떠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부피에처럼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3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마음과학에 대한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3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농협, 355-0061-8192-63) 한나무인성교육연구회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金周一 現代佛教新聞社 局長 別世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이 2023년 5월 4일 별세하였습니다.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래
주간불교신문과 현대불교신문을 거치며
평생을 불교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주일 국장.

언론인으로서 공무 중 급성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불교계 선후배 기자들의 마음을 모아
왕생극락 바람을 전합니다.

正論直筆의 원력과 불교언론 발전의 희망을 전했던
그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며
불교계 기자들은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 선후배 일동.

한국불교기자협회

금강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불교TV 우리불교신문 월간불광
월간불교문화 제주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총지종보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가나다순)